

충남 가금농가 및 방역공무원 AI 방역인식 실태조사와 분석

강마야(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maya@cni.re.kr)

정옥식(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연구위원, oksik@cni.re.kr)

김기홍(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imkh@cni.re.kr)

* 설문지 코딩 및 입력 : 황바람 연구원, 이도경 연구원 도움

이 연구의 목적은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충남 가금농가 및 방역 공무원의 AI 방역인식에 대한 기초 실태 및 심층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충청남도 가축방역 정책 수립 및 활용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CONTENTS

1. 서론
2. 충남 가금 농가의 AI 방역인식 실태 기초 설문조사 분석
3. 충남 방역 공무원의 AI 방역인식 실태 기초 설문조사 분석
4. 충남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의 심층 설문조사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 부록1 : 충남 가금 농가의 AI 방역인식 실태 설문조사지
- 부록2 : 충남 방역 공무원의 AI 방역인식 실태 설문조사지
- 부록3 : 충남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의 심층 설문조사지

요약

- 충남 가금 농가의 AI 방역인식 실태 기초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첫째, 행동지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지, 잘 수행한다고 여김.
 - 둘째,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항목을 수행하지 않음.
 - 셋째, 상당수 농가가 바이러스 유입가능성에 노출, 발병관련 각종 정보공유 미흡으로 질병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
 - 넷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농가에 대한 지원, 컨설팅 필요함.
 - 다섯째, 교육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필요함.
- 충남 방역 공무원의 AI 방역인식 실태 기초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첫째, 공무원 스스로 매뉴얼 숙지정도 및 신뢰도는 낮은 편임.
 - 둘째, 농가도 방역매뉴얼 숙지정도, 실천정도는 낮다고 평가함.
 - 셋째, 발생 전 농가의 질병 대비 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함.
 - 넷째, 발생 후 정부지자체보다 농가 자체에 원인이 크다고 봄.
 - 다섯째, 애로사항은 농민의식부족, 업무과다, 낮은 현장 이해도
- 충남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의 심층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첫째, 방역조치의 중요사항(소독, 출입통제, 개인위생 등)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AI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음.
 - 셋째, AI 발생 책임 주체는 국가, 농가, 지자체 순으로 응답함.
 - 넷째,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건강한 사육 환경, 차단 방역 및 소독 철저, AI 백신정책 도입, 시설 개선 및 보완 등을 꼽음.

0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축산농가와 축산담당자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가축방역 관련 주체들(축산농가, 축산담당자 등)에 대한 의식실태, 현장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론화한 경험은 전무함.
- 2017년에 충청남도 (구)축산과((신) 동물방역위생과) 및 충남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가축질병 중 AI를 대상으로 한 3가지 종류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결과를 정리, 공유, 공론화하지 못함.
-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관련 주체 모두에게 공유하고 방역인식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성 제기됨.

● 연구의 목적

- 축산농가 중 일반 가금농가, 질병발생농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실태, 방역여건, 방역매뉴얼 준수정도, 방역수준 및 의식 등 조사결과를 심층 분석하고자 함.
- 지자체 축산담당자의 방역 매뉴얼 숙지 및 농가지도 수준, 단계별 이행사항 실태, 애로사항, 향후 축산정책 과제 등 조사결과를 심층 분석하고자 함.
- 설문조사 세부내용으로 AI 방역수칙 준수정도, 매뉴얼 인지도·이해도·실천정도, 기타 정책의견 등
-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정책과 관련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 시간 범위 : 2017년 기준
- 공간 범위 : 충청남도

- 내용 범위 :

· 충남 가금 농가의 AI 방역인식 실태 기초 설문조사 분석(주관 : 충남연구원)

○ (일반농가) 도내 가금농가 중 무작위 선정 약 400여 농가
· 긴급행동지침(매뉴얼) 인지 및 실천정도, AI 인지 및 대처정도, 방역교육 만족도 및 개선방안, 기타 방역정책 의견 등

· 충남 방역 공무원의 AI 방역인식 실태 기초 설문조사 분석(주관 : 충남연구원)

○ 시군, 읍면, 방역지원본부 등 농가방역지도업무 담당자 약 100여명
· AI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숙지정도, 교육관련 업무(효율적인 교육형태), 단계별 조치사항, 농가방역관리 애로사항, 정책사업 우선순위 등

· 충남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의 심층 설문조사 분석(주관 : 충청남도 (구)축산과, (신)동물방역위생과)

○ (발생농가) '14~' 17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84호 *중복농가 제외
· 방역실태(방역시설 운영현황, 방역의식, 방역추진사항 등), 책임의식과 발생원인 자가진단, 위탁농가/산란계/육계/오리/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사육환경 등

● 연구의 정책활용

- 충남의 가금농가별 방역실태, 여건, 의식 등을 심층 분석하여서 방역 교육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지자체 방역 담당자의 방역매뉴얼 숙지 및 농가지도 수준 파악으로 업무연찬회 등 농가방역지도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충남의 AI(조류 인플루엔자) 가축질병 발생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AI 방역인식제고를 위한 권역별 순회 교육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02

충남 가금 농가의 AI 방역인식 실태 기초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 충청남도 가금 농가의 AI 방역인식 실태 기초 설문조사 개요
 - 2017년 충청남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AI 방역인식 실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초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명 : 충청남도 가금사육농가의 방역인식 실태 설문조사
· 조사목적 : 가금 농가의 AI 방역에 대한 각종 의식 수준 진단
· 조사기간 : 2017년 8월 29일 ~ 8월 30일(2회)
· 조사장소 :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 조사내용 : 기초 현황, 긴급행동지침(매뉴얼) 인지 및 실천정도, AI 인지 및 대처정도, 방역교육 만족도 및 개선방안, 기타의견(국가 및 지자체 방역정책 건의사항) 등
· 조사대상(부수) : 충남지역 내 가금 농가 363명(무작위 선정, 방역교육 참가자 중심)
· 조사진행 :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강마야, 김기흥), 환경생태연구부(정옥식, 이종구)
· 조사방법 : 당일 배포, 사전 설명, 설문조사(조사항목별 기초설명 이후 현장에서 설문조사 실시)
· 분석방법 : 빈도분석
· 활용자료 :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가금사육농가의 방역인식 실태 설문조사
· 기타사항 : 설문지는 부록 첨부

-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의 기초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연령 : 60대 149명, 50대 119명, 70대 35명, 40대 30명, 30대 22명, 20대&80대 각 1명
· 축종 : 육계 45%, 산란계 25%, 종계 16%, 토종닭 10% 순
· 종사기간 : 평균 20.3년
· 사육형태 : 위탁(마니커, 체리부로) 195명, 직영 153명
· 과거 AI 감염 경험 : 49명
· 이웃농가와의 평균거리 : 5.42km

2. 분석결과

1) 기초 현황(〈표 2-1〉 참고)

- 응답자 기초 현황(연령, 지역, 축종, 축사허가 여부, 종사기간, 농장 종사자수, 사육형태 등)
 - 연령은 60대(42%)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50대(33%), 평균 연령은 58.2세
 - 논산시, 계룡시, 서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농장 위치, 총 363명 응답
 - 축종은 육계, 산란계, 종계, 토종닭 순
 - 농장 당 평균 허가 축사면적은 1,313평, 미허가 축사면적은 722평
 - 이웃농가와 평균 거리는 5.42km, 평균 종사 기간은 20.2년, 본인을 포함한 농장 종사자는 3.15명
 - 사육 형태는 위탁 형태 195농가(56%), 직영 형태 154농가(44%), 위탁의 경우 '마니커' 와 '체리부로' 가 높은 비중 차지
 - 응답한 농가 중 49농가(13.5%)는 과거 농장 내 고병원성 AI 발생 경험 보유

〈표 2-1〉 응답자 기초 현황

항목	구분	단위	값	(비중)	비고
농장주 연령	20대	세	1	0.3%	평균 58.2세 - 최저연령 : 28세 - 최고연령 : 80세
	30대		22	6.1%	
	40대		30	8.3%	
	50대		118	32.5%	
	60대		149	41.0%	
	70대		35	9.6%	
	80대		1	0.3%	
	미확인/무응답		7	1.9%	
	소계		363	100.0%	
농장위치(지역)	천안시		89	24.5%	
	당진시		76	20.9%	
	아산시		60	16.5%	
	공주시		43	11.8%	
	예산군		34	9.4%	
	서산시		23	6.3%	
	보령시		17	4.7%	
	홍성군		11	3.0%	
	부여군		1	0.3%	
	청양군		1	0.3%	
	태안군		1	0.3%	
	미확인/무응답		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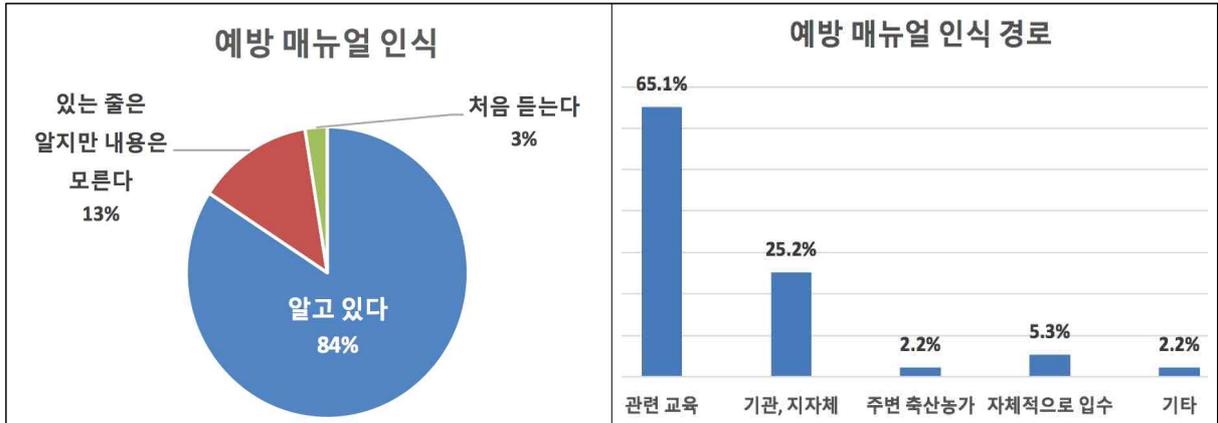
항목	구분	단위	값	(비중)	비고
	소계		363	100.0%	
가금류 세부축종(농장수)	육계	개소	156	43.0%	
	산란계		92	25.3%	
	종계		54	14.9%	
	토종닭		35	9.6%	
	육용오리		9	2.5%	
	종오리		6	1.7%	
	미확인/무응답		11	3.0%	
	소계		363	100.0%	
축사 허가 여부	허가축사면적/평균	평	1,313.1		
	미허가축사면적/평균	평	722.4		
이웃한 농장과의 거리	평균	km	5.42		
본인을 포함한 농장 종사자수	평균	명	3.15		
가금사육 종사기간	평균	년	20.2		
과거 AI 발생경험 여부	여	-	49	13.5%	
	부	-	314	86.5%	
	소계		363	100.0%	
사육형태	직영	-	154	42.4%	
	위탁	-	195	53.7%	
	미확인/무응답		14	3.9%	
	소계		363	100.0%	
계열주체(농장 혹은 회사명)	(주관식)	-	마니커 : 30가구 체리부로 : 29가구		

2) 긴급행동지침(매뉴얼) 인지 및 실천정도

● 긴급행동지침(매뉴얼) 인지도 및 인식 경로(〈그림 2-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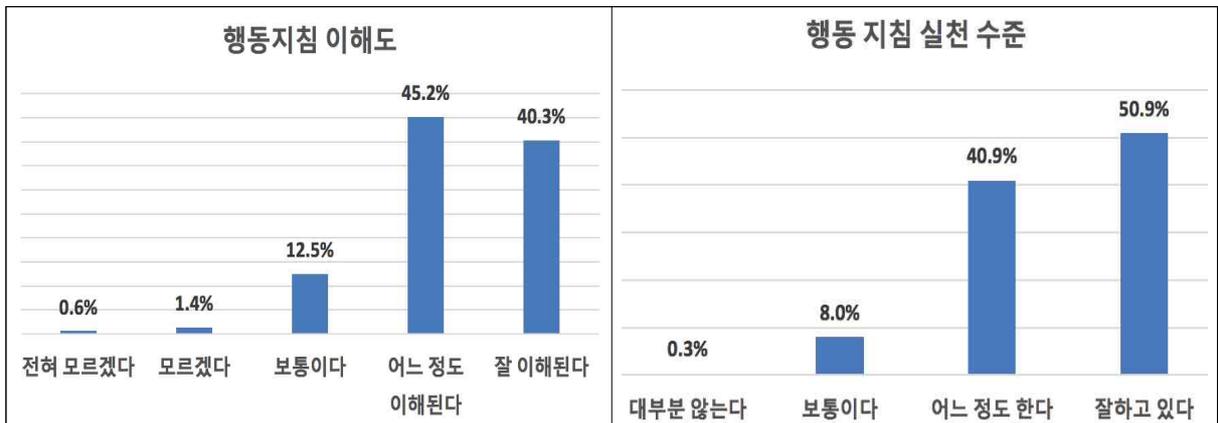
- 축산종사자가 행동지침의 존재를 인지하는 정도는 '잘 알고 있다' 는 비율은 84%, '있는 줄 알지만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가 13%, '처음 듣는다' 는 비율도 3%
- 행동 지침에 대한 인식 경로는 관련 교육 65.1%, 기관이나 지자체 25.2%, 주변 축산농가 2.2%, 자체 입수 5.3% 등 비공식루트 7.5% 차지, 대부분 관련교육 또는 기관 지자체로부터 인지하게 됨.

〈그림 2-1〉 긴급행동지침(매뉴얼) 인지도 및 인식 경로



● 긴급행동지침(매뉴얼) 이해도 및 실천 수준(〈그림 2-2〉 참고)

- 이 행동 지침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약 85.5%('잘 이해된다' 응답은 40.3%, '어느 정도 이해된다' 응답은 45.2%)로 응답, '보통이다' 를 포함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로 나타남. 행동 지침을 이행하는 수준은 다수(92%)가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 그러나 바로 이어진 AI를 대비하여 하는 활동을 묻는 질문에서 단지 44%의 응답자만이 5개의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한다고 대답하여서 나머지 56% 응답자는 AI 대비에 허점이 있음을 보임.
- 앞선 문항들과 비교해보면, 응답자 다수가(85% 이상) 지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이행도 잘 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나 실제로 5가지 준수사항을 직접 물어본 결과, 46%만이 제시한 5가지 대비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축산농가 본인들의 행동지침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 대비수준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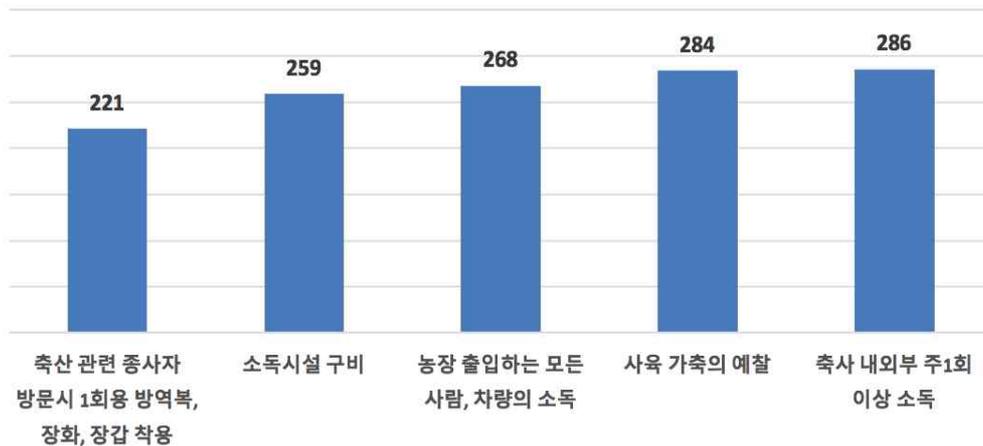


〈그림 2-2〉 긴급행동지침 이해도 및 실천 수준

● 긴급행동지침(매뉴얼) 실천 방식(복수응답)(〈그림 2-3〉 참고)

- 긴급행동지침 실천 방식으로서 축사 내외부 주 1회 이상 소독, 사육 가축의 예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의 소독, 소독시설 구비,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방문 시 1회용 방역복과 장화,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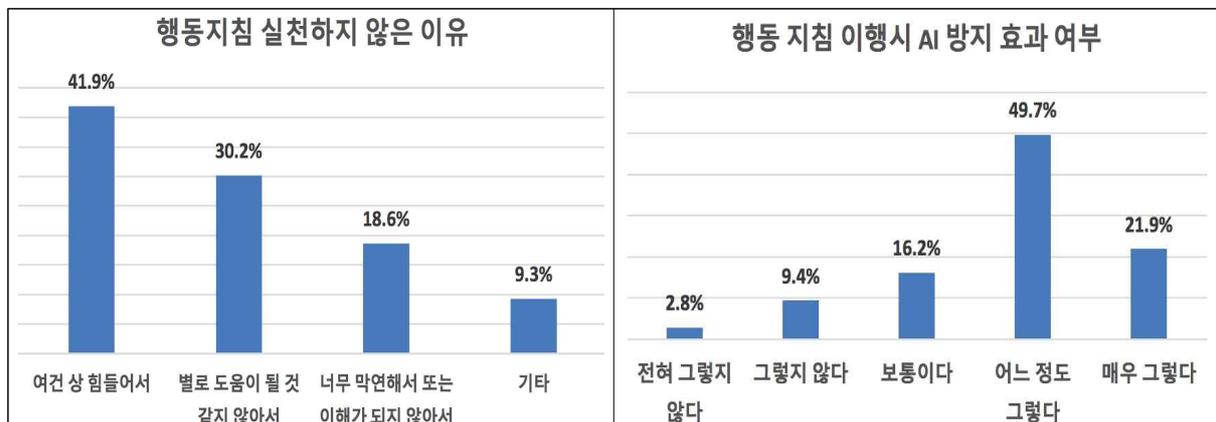
행동지침 실천 방식(복수응답)



〈그림 2-3〉 긴급행동지침 실천 방식

● 긴급행동지침(매뉴얼) 실천하지 않은 이유 및 AI 방지 효과 여부(〈그림 2-4〉 참고)

- 행동지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침을 실천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41.9%가 ‘여건 상 힘들기 때문’ 이라고 응답, ‘실행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도 30.2%
-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라는 응답도 18.6%로서 앞의 응답과 더불어 AI를 대비한 교육과 행동지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농가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줌.
- 다음 질문에서도 행동 지침을 잘 지키면 AI를 잘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어느 정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단지 약72%에 불과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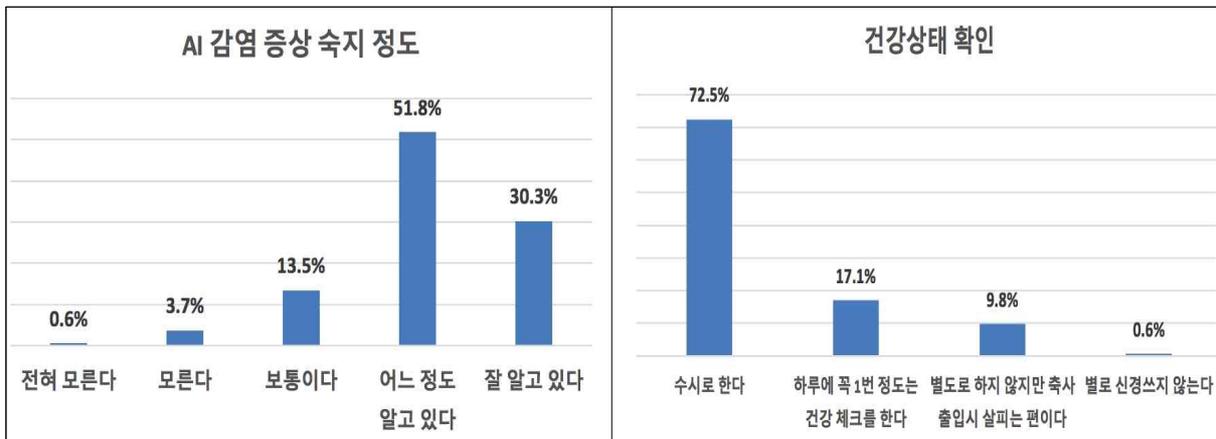


〈그림 2-4〉 긴급행동지침 실천하지 않은 이유와 AI 방지 효과 여부

3) 조류인플루엔자 인지 및 대처정도(과거 발생경험 있는 농가 설문도 포함)

● AI 감염 증상 속지 정도 및 건강상태 확인(〈그림 2-5〉 참고)

- 축산농가들이 AI에 증상을 인지하고 있고, 발생 상황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AI 감염 증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항에서는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30.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51.8%, '보통이다' 와 '잘 모른다' 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18%나 되었음.
- 가축을 하루에 몇 번씩 확인을 하는지 조사한 질문에서는 72.5%가 '수시로 체크한다' 라고 응답했으나 '하루에 한번' (17.1%), '별도로 하지 않지만 출입시 살핀다' 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10%나 되어 건강 체크 횟수도 높지는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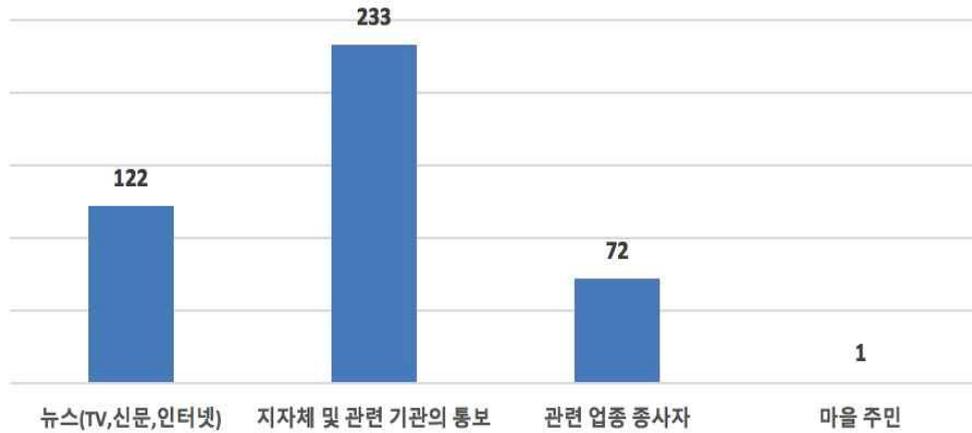


〈그림 2-5〉 AI 감염 증상 속지 정도 및 건강상태 확인

● AI 발생 소식 인지 경로(복수응답)(〈그림 2-6〉 참고)

- 인근 축산 농가에 AI 의 발생소식을 듣는 경로로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통보' 가 전체응답(복수)의 58.4%로 제일 높긴 했으나 '뉴스와 TV 신문,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 가 28.5%, '관련 업종 종사자' 가 16.8%로 공식적이지 않은 경로로 얻는 비율이 45.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소식 인지 경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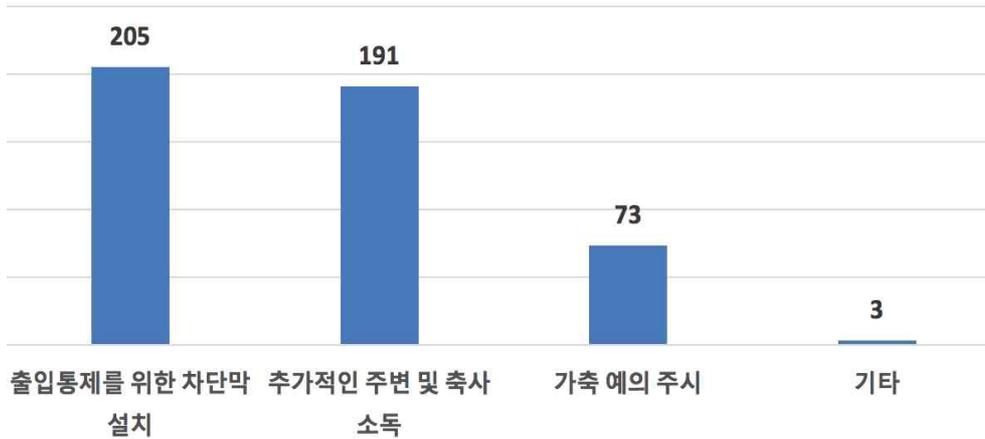


〈그림 2-6〉 AI 발생 소식 인지 경로

● AI 발생 소식 인지 후 행동(복수응답)(〈그림 2-7〉 참고)

- 국내 AI 발병을 확인한 후 가장 먼저 행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서 ‘출입통제를 위한 차단막 설치’가 43.4%, ‘추가적인 소독을 한다’ 응답한 비율이 40.5%, ‘가축을 예의주시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15.5%
-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종합하면, AI 감염증상에 대한 숙지 미숙한 농가와 가축의 건강 확인 빈도가 적은 농가가 약 30% 이룸. 또한 인근 농가의 발생소식을 비공식적 루트로 접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경계 혹은 심각 단계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종합적으로 이 결과들은 농가가 AI 발병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지게 만들어서 높은 경계수준을 만들기 전에 AI 바이러스가 본인의 농가에 유입하는 결과를 만들 뿐 아니라 발생농가로부터 AI 바이러스가 다른 매개체(차량이나 부산물의 이동 등)을 통해 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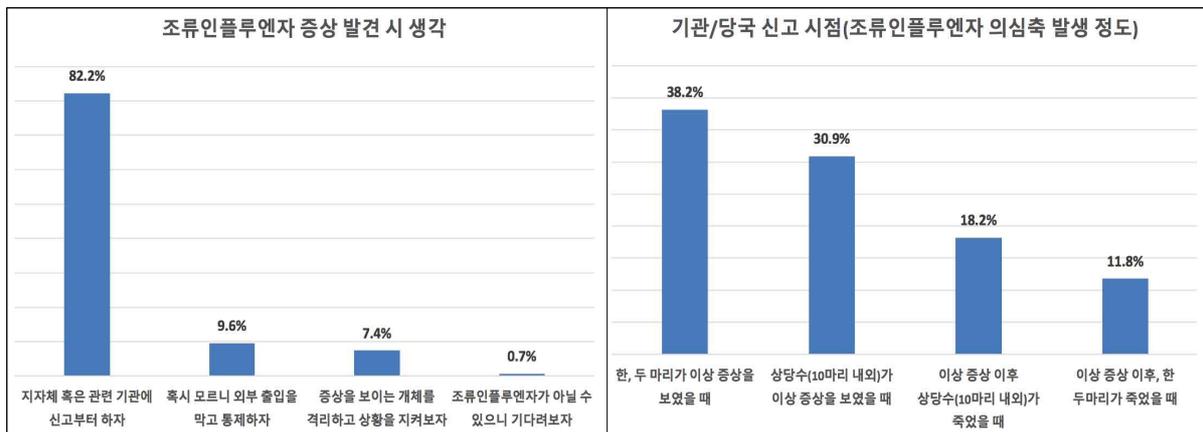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소식 인지 후 행동(복수응답)



〈그림 2-7〉 AI 발생 소식 인지 후 행동

● AI 증상 발견 시 생각 및 기관/당국 신고시점(〈그림 2-8〉 참고)

-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경험 농가에 대한 질의에서 사각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육하는 가금에게 이상 증상 발견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 82.2%가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고 응답했으나 응답자 중 7.4%는 ‘이상 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개인적으로 격리하고 상황을 지켜본다’ 라고 응답함.
- AI 발생을 당국에 신고한 시점은 ‘한두 마리가 이상 증상을 보였을 경우’ 가 38.2%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10마리 이상이 이상 증상을 보였을 경우(30.9%), 사육하는 가금류가 죽기 시작한 이후 (한두 마리가 죽었을 경우 11.8%, 상당수가 죽었을 경우 18.2%) 신고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음.



〈그림 2-8〉 AI 증상 발견 시 생각 및 기관/당국 신고시점

4) 방역 교육 만족도 및 개선방안

● 가금농가의 예방교육 경험 및 만족도 조사(〈표 2-2〉 참고)

- 교육수강 경험 : 있다(92%), 없다(8%)로 응답, 있는 경우는 최근 3년간 3.42회 수강 경험
- 만족도 : 만족한다(45%), 보통이다(34%)로 응답

〈표 2-2〉 충청남도 가금농가의 예방교육 경험 및 만족도

번호	항목	(주관적 점수)	비중	순위
①	매우 만족한다	90점이상	16%	
②	만족한다	70점	45%	1순위
③	보통이다	50점	34%	2순위
④	만족하지 않는다	30점	4%	
⑤	전혀 않는다	0점	1%	
	무응답			
	합계		100.0%	



●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필요성(〈표 2-3〉 참고)

- 필요하다(47%), 매우 필요하다(37%) 순으로 응답하여 질병 예방교육 필요성 공감도 높은 편

〈표 2-3〉 충청남도 가금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필요성

번호	항목	(주관적 점수)	비중	순위
①	매우 필요하다	90점이상	37%	2순위
②	필요하다	70점	47%	1순위
③	보통이다	50점	13%	
④	필요하지 않는다	30점	2%	
⑤	전혀 필요치 않다	0점	1%	
	무응답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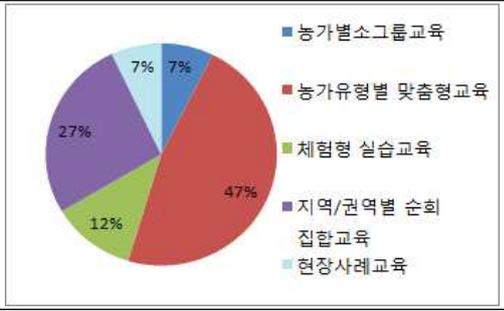


● 가금농가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교육 형태(〈표 2-4〉, 〈그림 2-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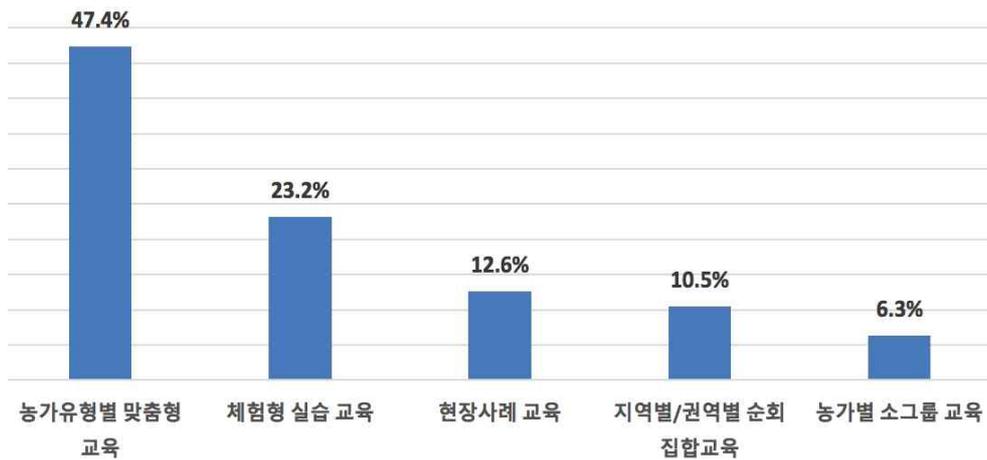
- 농가유형별 맞춤형 교육(47%), 체험형 실습교육(12%), 지역별/권역별 순회 집합교육(12%) 순으로 응답함.

〈표 2-4〉 충청남도 가금농가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교육 형태

번호	항목	비중	순위
①	농가별 소그룹 교육	7%	
②	농가유형별 맞춤형 교육	47%	1순위
③	체험형 실습교육	12%	3순위
④	지역별/권역별 순회 집합교육	27%	2순위
⑤	현장사례 교육	7%	
	무응답	-	
	합계	100.0%	



효과적일 것 같은 교육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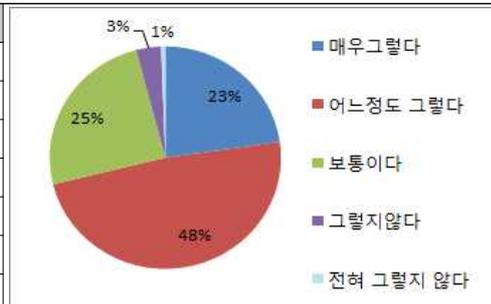


〈그림 2-9〉 효과적일 것 같은 교육 형태

- 가금농가의 실질적인 가축전염병 체험교육 의향 및 효과성 판단(〈표 2-5〉 참고)
 - 체험교육 수강 의향 : 있다(75%), 없다(9%)로 응답함.
 - 체험교육의 효과성 판단 : 효과적일 것이다(48%), 보통이다(25%),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23%)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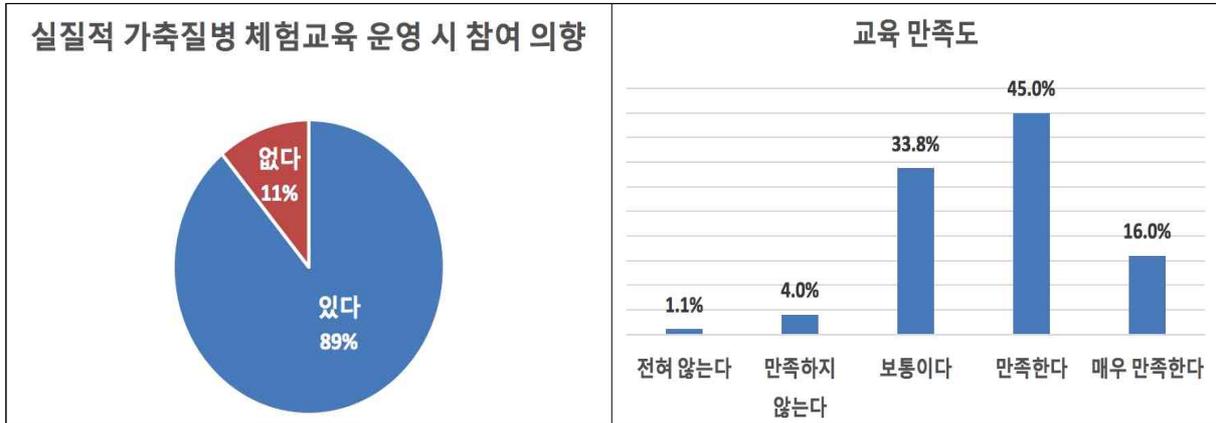
〈표 2-5〉 충청남도 가금농가의 가축전염병 체험교육 의향

번호	항목	(주관적 점수)	비중	순위
①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90점이상	23%	
②	효과적일 것이다.	70점	48%	
③	보통일 것이다.	50점	25%	
④	효과가 없을 것이다.	30점	3%	
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0점	1%	
	무응답			
	합계		100.0%	



- 가금농가의 실질적인 가축전염병 체험교육 의향 및 효과성 판단(〈그림 2-10〉 참고)

- 최근 3년 동안 AI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89% 이었으나 11%는 전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농가도 평균 3.47회로 나타나 연평균 1회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매우만족 16%, 만족하는 편 45%)로 나타나 39%는 교육에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응답도 상당한 수준임.



〈그림 2-10〉 실질적 가축질병 체험교육 운영 시 참여 의향

● 가금농가가 생각하는 현행 교육에 대한 영역별 개선사항(주관식)

- 교육문제점 : 중복교육,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동일교육, 똑같은 내용과 방법의 교육, 실제 방역에 도움 미비, 방역에 취약한 교육, 농장상황과 맞지 않는 교육, 형식적 교육, 이론교육만으로는 기억에 한계, 현장대처교육 미비, 현실성이 없는 교육, 효과가 없는 단체 주입식 교육, 행정 편의적 교육, 행정이 주관적 교육을 통해 행정 명령에 의존한다는 생각, 농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 부재, 교재를 읽는 것으로 충분할 정도의 낮은 교육수준, 집합교육은 오히려 양축인들을 밀집시켜 바이러스 전파 우려 상존 등
- 교육방향 : 일반적인(문헌에 있는 것)내용만 교육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 체계적인 교육 필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게 현장 중심의 현실적 교육 요망 등
- 교육내용 : 축종별 교육, 실제사례 중심교육, 소독약품 관련 효과 및 효능 교육(사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내용 포함 필요), 가축전염병교육,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현재 진행 중인 질병에 대한 교육이 아닌 새로운 질병에 대한 교육, 농장에 놓치는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등
- 교육대상 : 가금농가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한 차등 교육 실시(머리로서는 알겠지만 방법이 힘든 상황), 귀농자에게도 체계적인 교육 등
- 교육방식 : 중복교육은 인터넷교육으로 대체, 영상으로 감상, 시청각 및 직접체험, 미디어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경로 개발, 축종별 간단한 내용정리(시간절약), 수시교육, 언제 어디서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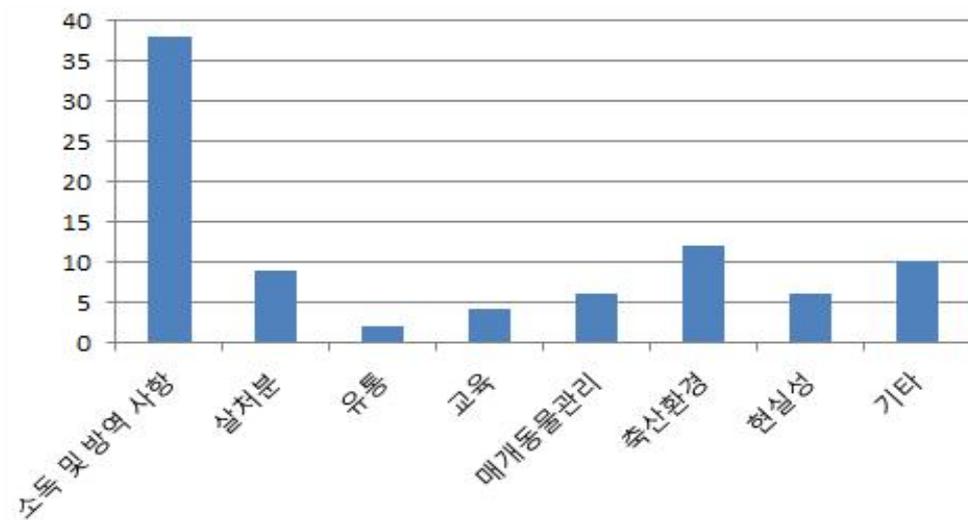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전에 농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1:1교육, 지자체 별 교육, 일관성있는 주기적인 교육, 질병발생시 빠른 대처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쉽게 알 수 있는 시각자료 사용하는 교육 등

- 기타사항 : AI 발생의 원인 및 책임이 농가에 있다는 인식 전환 중요(AI는 소독으로 100% 해결되지 못함), 발병원인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 근본적 대책 수립 시급, 역학조사 등 낮은 초동대처, 농장 환경에 맞는 방역체계 지도 필요(단순히 시설만 갖추라는 식의 교육은 실천상 어려움), 교육만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중요하지 않음, 정부의 대책 마련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중요,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더 중요, 연구원에서 믿을 수 있는 소독약 선정 등

5) 국가 및 지자체 방역정책 건의사항

- AI 확산방지를 위해 당국에 바라는 점(〈그림 2-11〉 참고)

- 축산 농가가 지자체 혹은 당국에 바라는 점은 소독 및 방역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축산 환경 개선, 살처분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음.



〈그림 2-11〉 농가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당국에 바라는 점

6) AI 발생농가와 미발생 농가 비교

- 기초현황 비교(〈표 2-6〉 참고)

- AI 발생농가와 미발생 농가를 비교해본 결과, 특이한 점이 두 가지 발견되었음.

- 첫째, 축종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음. 미발생농가에서는 육계가 49.2%를 차지하고, 산란계는 단지 20.3%에 불과했으나, 반면 발생농가는 산란계가 63.8%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육계는 12.8% 불과함.
- 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Chi-square test = 45.10, P < 0.05). 이는 산란계는 육계와 달리 사육 기간이 긴 것으로 인한 바이러스와의 접촉 기회가 높고 밀식 사육으로 인한 실내 온도의 상승 및 환기, 스트레스 문제로 인한 면역력 감소, 호흡기 질환 만연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임.
- 둘째, 발생농가는 미발생농가에 비해서 직영으로 사육을 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발생농가중 약 70%가 직영으로 가금사육 농가였고 미발생농가에서는 직영의 비율은 약 40%에 불과함.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test = 18.18, p = 0.00002). 아마도 이 차이는 위탁을 받는 농가가 모기업으로부터 위탁 계약시 어느 정도의 시설 점검, 사육 관리 등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2-6〉 AI 발생농가와 미발생 농가 일반 기초현황 비교

구분		발생농가(49)	미발생농가(314)																					
농장주 연령(평균)		56.7세	58.5세																					
축종 분포		<table border="1"> <caption>축종 분포 비교 (단위: %)</caption> <thead> <tr> <th>축종</th> <th>AI 경험 농가</th> <th>AI 비경험 농가</th> </tr> </thead> <tbody> <tr> <td>산란계</td> <td>63.8%</td> <td>20.3%</td> </tr> <tr> <td>토종닭</td> <td>6.4%</td> <td>10.2%</td> </tr> <tr> <td>중계</td> <td>6.4%</td> <td>16.7%</td> </tr> <tr> <td>육계</td> <td>12.8%</td> <td>49.2%</td> </tr> <tr> <td>육용오리</td> <td>4.3%</td> <td>2.3%</td> </tr> <tr> <td>종오리</td> <td>6.4%</td> <td>1.0%</td> </tr> </tbody> </table>		축종	AI 경험 농가	AI 비경험 농가	산란계	63.8%	20.3%	토종닭	6.4%	10.2%	중계	6.4%	16.7%	육계	12.8%	49.2%	육용오리	4.3%	2.3%	종오리	6.4%	1.0%
축종	AI 경험 농가	AI 비경험 농가																						
산란계	63.8%	20.3%																						
토종닭	6.4%	10.2%																						
중계	6.4%	16.7%																						
육계	12.8%	49.2%																						
육용오리	4.3%	2.3%																						
종오리	6.4%	1.0%																						
허가축사 여부	허가	1114.1평	1349.7평																					
	미허가	702평	724																					
이웃한 농장거리		4.75 km	5.52 km																					
종사 기간		20.63년	20.15년																					
농장 종사자		5.1명	2.8명																					
예방교육 횟수(최근3년)		4.37회	3.31회																					

● 인식자치 항목별 비교(〈표 2-7〉 참고)

- AI 발생농가와 미발생농가의 실제적인 인식의 비교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음.

- 행동지침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질문에서 두 농가그룹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 (85%, 85%)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 '있는 줄은 알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와 '처음 듣는' 경우도 비슷한 수치를 보임.
- 행동지침의 입수경로와 이해도, 본인들이 행동지침을 실천하는 정도 역시 두 그룹 간에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행동지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중요한 차이를 보임. AI 발생농가의 경우, 50%가 행동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행동지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행동지침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라는 대답도 33%로 미발생 농가의 17%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음.
-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행동지침의 신뢰도와 이해도가 발생농가에게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반증함. 아래 문항의 행동지침 신뢰도를 직접 물어본 결과, 미발생농가는 위의 두 대답 대신 여건 상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높아서(46%) 지원이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줌.
- 농가들이 행동지침을 잘 지키면 AI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미발생 농가는 24%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발생농가의 8%만이 정말 '그렇다' 고 응답함.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 는 대답은 미발생 농가는 단지 1% 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발생농가는 16%로 상당히 많은 수가 행동지침의 신뢰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 외의 다른 문항들은 두 그룹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발생농가와 미발생농가의 일평균 차량 출입 횟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발생농가가 평상시 (1.88회)와 많을 때 (4.2회) 모두 미발생농가 (1.72회, 3.92회)보다 높았음. 출입하는 차량횟수는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 차이도 AI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7〉 AI 발생 농가와 미발생 농가의 인식차이 항목별 비교

문항	AI 발생농가	미발생농가
행동지침 인지 유무	<p>알고있다: 85% 있는줄 알지만 내용은 모른다: 13% 처음 듣는다: 2%</p>	<p>알고있다: 84% 있는줄 알지만 내용은 모른다: 13% 처음 듣는다: 3%</p>

문항	시 발생능가	미발생능가
행동지침 입수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교육 ■ 기관, 지자체 ■ 주변축산능가 ■ 자체적으로 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교육 ■ 기관, 지자체 ■ 주변축산능가 ■ 자체적으로 입수
행동지침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이해된다. ■ 어느정도 이해된다 ■ 보통이다 ■ 모르겠다 ■ 전혀 모르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이해된다. ■ 어느정도 이해된다 ■ 보통이다 ■ 모르겠다 ■ 전혀 모르겠다
행동지침 실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하고있다 ■ 어느정도한다 ■ 보통이다 ■ 대부분 않는다 ■ 전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하고있다 ■ 어느정도한다 ■ 보통이다 ■ 대부분 않는다 ■ 전혀 않는다
행동지침 실천 않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상 힘들어서 ■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 이해가 되지 않아서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상 힘들어서 ■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 이해가 되지 않아서 ■ 기타
평소 실천하는 사항 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모두

문항	시 발생농가	미발생농가
행동지침 신뢰정도		
시 감염 증상 인지 정도		
가족 예찰 정도		
1일 출입차량 대수(평균)	평상시 /1.88, 많을 때 /4.2	평상시 /1.73, 많을 때 /3.92
시 발생 소식 경로		
시 발생 소식 접한 후 첫 조치는?		
당국에 신고한 시점은		

문항	시 발생농가	미발생농가
AI 증상 조류 발견시 첫 생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닐수있으니 기다려보다 ■ 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격리하고 상황을 보자 ■ 지자체 혹은 관련기관에 신고 ■ 외부출입을 막고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닐수있으니 기다려보다 ■ 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격리하고 상황을 보자 ■ 지자체 혹은 관련기관에 신고 ■ 외부출입을 막고 통제
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그렇다 ■ 어느정도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그렇다 ■ 어느정도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3. 요약 및 시사점

- 설문 결과를 볼 때 AI 발생이 차량 출입수, 노출 빈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바이러스의 농가 내 그리고 축사 내 유입 방지가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보임.
- 설문 답변에서 농가들은 행동지침을 대체로 인지하고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 행동 지침 상 수행 개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농가가 모든 항목을 수행하지 않음.
- 무엇보다 26개 항목이 수록된 일본과 달리 지침 상 권고하는 행동의 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56%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상당수의 농가가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라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경계 혹은 심각 단계에서도 공식 라인을 통한 소식 전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지불식간에 전파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 농가에 대한 AI발병 소식 전파에 대한 다중적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AI 발생 농가가 교육 참여 횟수가 많다는 것을 볼 때 교육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과거 AI 발생농가 중 행동지침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가 여건 상 힘들었다는 비율이 미발생 농가보다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03

충남 방역 공무원의 AI 방역인식 실태 기초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 충청남도 방역 공무원의 AI 방역인식 실태 기초 설문조사 개요
 - 2017년 충청남도 방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방역인식 실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방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초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명 : 충청남도 가축방역종사자의 방역인식 실태 설문조사
· 조사목적 : 방역 공무원의 AI 방역에 대한 각종 의식 수준 진단
· 조사기간 : 2017년 9월 4일(1회)
· 조사장소 : 보령시 웨스트피아
· 조사내용 : AI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숙지정도, 교육 관련 업무, 단계별 조치사항 업무(점검, 발생 전, 발생 후, 매몰), 기타 사항(강조할 정책사업, 우선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슈) 등)
· 조사대상(부수) : 충남지역 내 시군, 읍면, 방역지원본부 등 가축방역관련 지도업무 담당자 102명
· 조사진행 :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김기흥), 환경생태연구부(정옥식, 이종구)
· 조사방법 : 당일 배포, 사전 설명, 설문조사(조사항목별 기초설명 이후 현장에서 설문조사 실시)
· 분석방법 : 빈도분석
· 활용자료 :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가축방역종사자의 방역인식 실태 설문조사
· 기타사항 : 설문지는 부록 첨부

-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의 기초현황은 다음과 같음.

· 근무기관 : 방역본부(31%), 읍면사무소(27.7%), 시군청(23.4%), 농축협(11.0%)
· 관할지역 : 충청남도 전역

2. 분석결과

1) 기초 현황(〈표 3-1〉 참고)

- 응답자 기초 현황(종사기간, 근무기관 등)

- 종사기간은 최소 0.1년에서 최대 26년으로서 평균 5.98년
- 근무기간은 방역본부 28.4%, 읍면사무소 25.5%, 시군청 21.6%, 농축협 9.8%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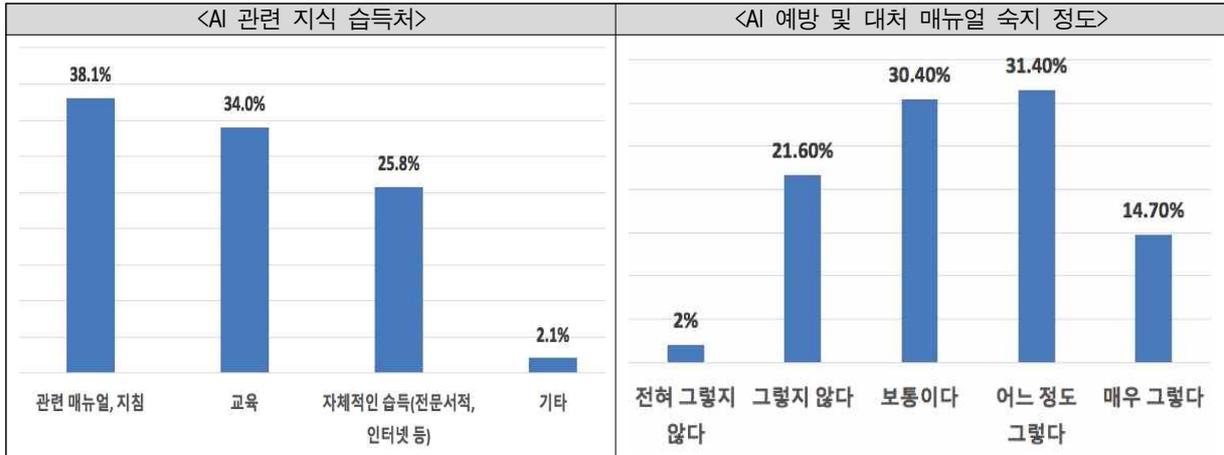
〈표 3-1〉 응답자 기초 현황

항목	구분	빈도수	비중	비고
종사기간	응답	94	92.2%	평균 5.98년 - 최저연령 : 0.1년 - 최고연령 : 26년
	미확인/무응답	8	7.8%	
	소계	102	100.0%	
근무기관	방역본부	29	28.4%	
	읍면사무소	26	25.5%	
	시군청	22	21.6%	
	농축협	10	9.8%	
	기타	7	6.9%	
	소계	94	92.2%	
	미확인/무응답	8	7.8%	
	합계	102	100.0%	

2) 매뉴얼 관련 업무

-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지식 습득처 및 매뉴얼 숙지 정도(〈그림 3-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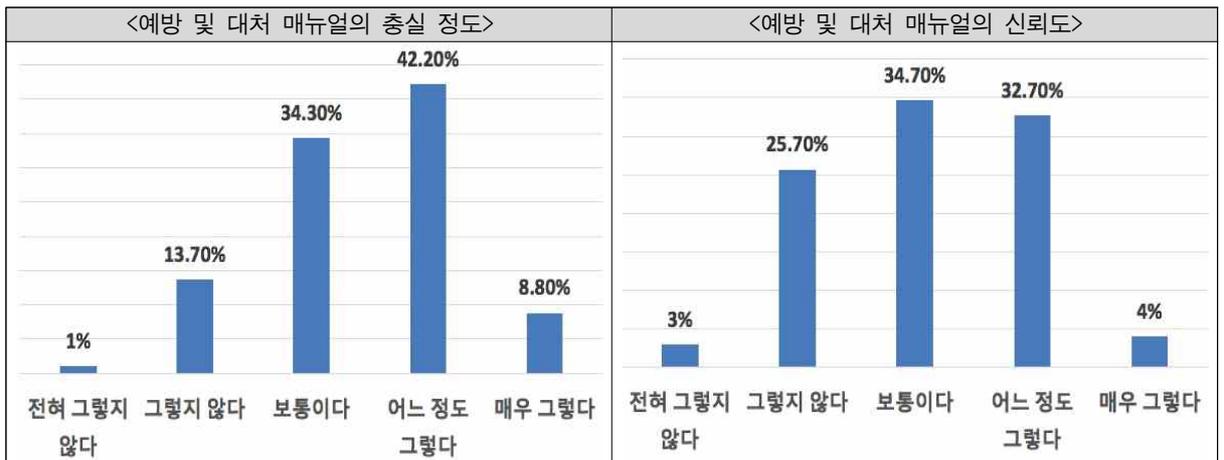
- 먼저 축산담당자에게 AI 관련 업무 지식 습득처를 묻는 질문에서 관련 매뉴얼 지침(38.1%)과 관련 교육(34%)을 응답, 하지만 25.8%의 응답자는 전문서적이거나 인터넷 등 자체적으로 얻는다고 응답
- AI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의 숙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14.7%)' 와 '어느 정도 그렇다' (31.4%) 등 약 46%에 불과, 나머지 54%는 매뉴얼 숙지 정도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음.



<그림 3-1> AI 관련 지식 습득처 및 매뉴얼 숙지 정도

●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의 충실 정도와 신뢰도(<그림 3-2> 참고)

- 농가들이 수행해야 하는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의 내용 충실 정도를 물어본 질문에서 약 51%의 응답자만이 매뉴얼이 충실한 편이라고 응답
- 매뉴얼 수행 여부에 따라 질병 발생 및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 신뢰도가 떨어져서 약 37%의 응답자(어느 정도 그렇다 32.7%, 매우 그렇다 4%)만이 매뉴얼 신뢰성이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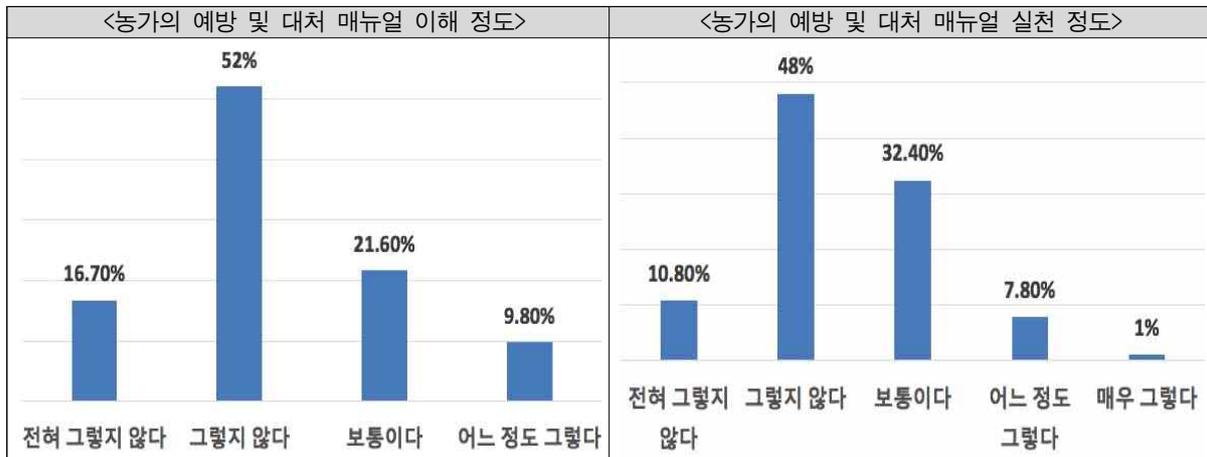


<그림 3-2> AI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충실 정도와 신뢰도

● 축산담당자가 생각하는 축산농가의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이해 정도와 실천 정도(<그림 3-3> 참고)

- 축산담당자가 생각하기에 축산농가들이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이해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은 9.8%,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은 16.7%,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은 52.0%

- 축산 담당자가 생각하기에 축산농가들이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실천(시설 관리, 방역과정 등 전반적인 측면) 정도는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 '어느 정도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은 7.8%에 불과
- 결과적으로 축산담당자들은 축산농가들이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이해 정도뿐만 아니라 실천 정도에서도 잘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축산담당자가 생각하는 축산농가의 매뉴얼 이해 정도 및 실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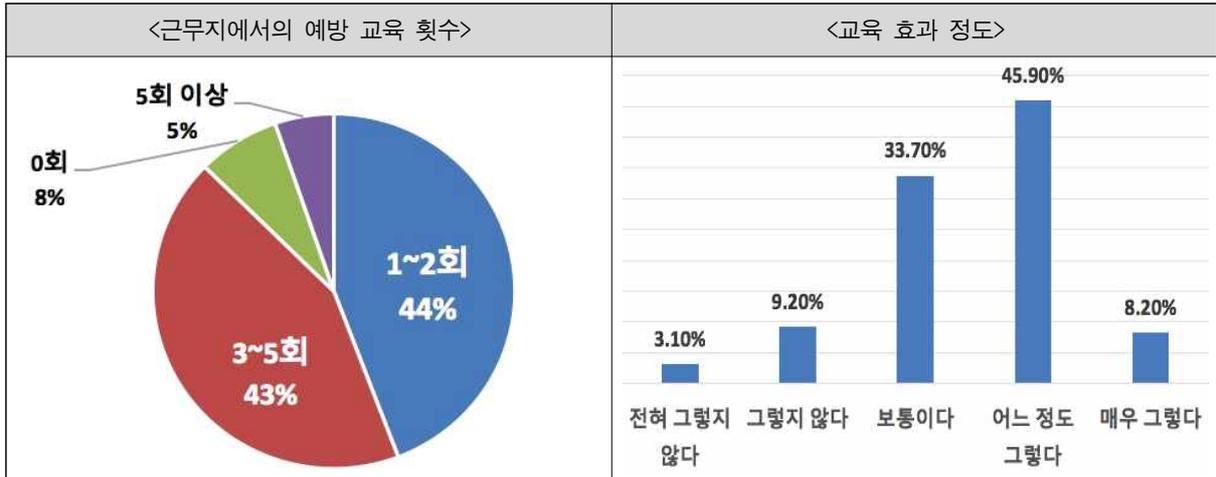
3) 교육 관련 업무

- 방역공무원의 축산농가 대상 교육 현황 조사(〈표 3-1〉, 〈그림 3-4〉 참고)
 - 연간 축산농가 대상의 교육 횟수 : 2회(42%), 3회(41%), 1회 및 5회(각 7%), 4회(5%)

〈표 3-1〉 충청남도 방역공무원의 축산농가 대상 교육 현황



- 축산 담당자로서 축산 농가에 대해 질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52%가 연간 2회 이하(연간 0회 8%, 1~2회, 44%)를 차지
- 교육 효과 면에서, 효과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숫자는 8.2%에 불과하지만 '그렇지 않다' (9.2%)와 '전혀 그렇지 않다' (3.1%)의 비율이 낮음을 나타내 약 54%가 교육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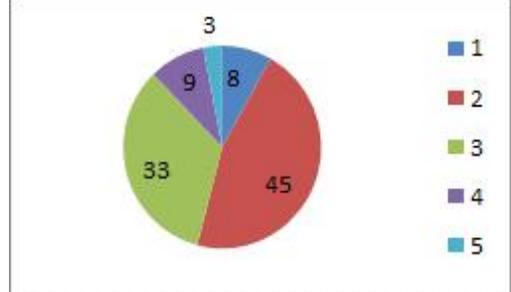


〈그림 3-4〉 근무지에서의 예방 교육 횟수 및 교육 효과 정도

- 방역공무원이 생각하는 농가 대상으로 한 가축전염병 방역 교육 효과성(〈표 3-2〉 참고)
 - 어느 정도 그렇다(45%), 보통이다(33%), 순으로 응답

〈표 3-2〉 충청남도 방역공무원의 가축전염병 방역 교육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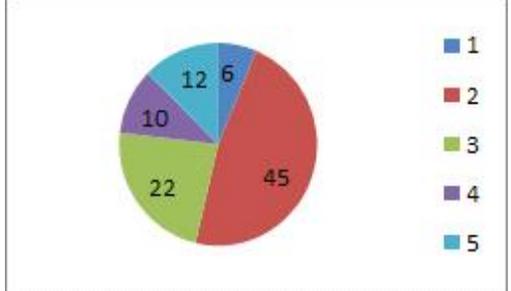
번호	항목	비중	순위
①	매우 그렇다	8%	
②	어느 정도 그렇다	45%	1순위
③	보통이다	33%	2순위
④	그렇지 않다	9%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무응답	2%	
	합계	100	



- 방역공무원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교육 형태(〈표 3-3〉 참고)
 - 농가유형별 맞춤형 교육(45%), 체험형 실습교육(22%), 현장사례 교육(12%) 순으로 응답

〈표 3-3〉 충청남도 방역공무원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교육 형태

번호	항목	비중	순위
①	농가별 소그룹 교육	6%	
②	농가유형별 맞춤형 교육	45%	1순위
③	체험형 실습교육	22%	2순위
④	지역별/권역별 순회 집합교육	10%	
⑤	현장사례 교육	12%	3순위
	무응답	5%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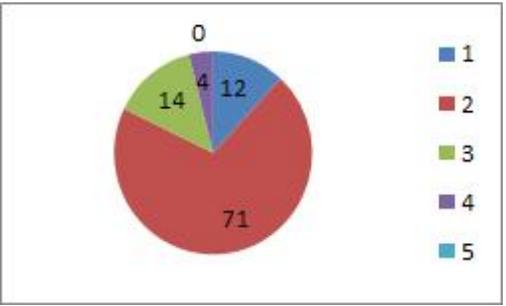


● 방역공무원의 가축전염병 예방 체험교육 효과성 판단(〈표 3-4〉 참고)

- 어느 정도 그렇다(71%), 보통이다(13.5%), 매우 그렇다(12%) 순으로 응답

〈표 3-4〉 충청남도 방역공무원의 가축전염병 예방 체험교육 효과성

번호	항목	비중	순위
①	매우 그렇다	12%	3순위
②	어느 정도 그렇다	71%	1순위
③	보통이다	13.5%	2순위
④	그렇지 않다	3.5%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무응답	-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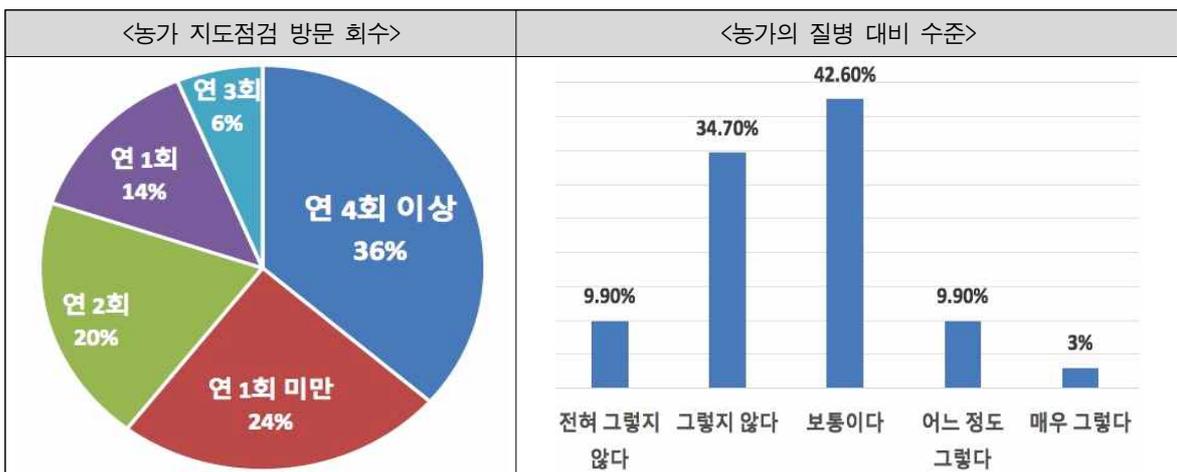


3-1) 단계별 조치사항 업무 : 점검 단계

● 농가 지도점검 방문 회수 및 질병 대비 수준(〈그림 3-5〉 참고)

- 평상시 농가 지도 및 점검 횟수를 조사한 질문에서, 연 1회 미만은 24%, 1회 14%, 2회 20%, 3회 6%, 4회 이상은 36%로 응답, 1회 이하가 38%, 4회 이상이 36%로 나타나. 지자체별로도 농가 점검 방문 횟수가 큰 차이를 보임.

- 축산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평상시 농가의 질병 대비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 약 10%의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 34.7%는 '그렇지 않다', 42.6%는 '보통' 이라고 응답, 잘 대비되어 있는 편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3% (매우 그렇다 3%, 어느 정도 그렇다 약 10%)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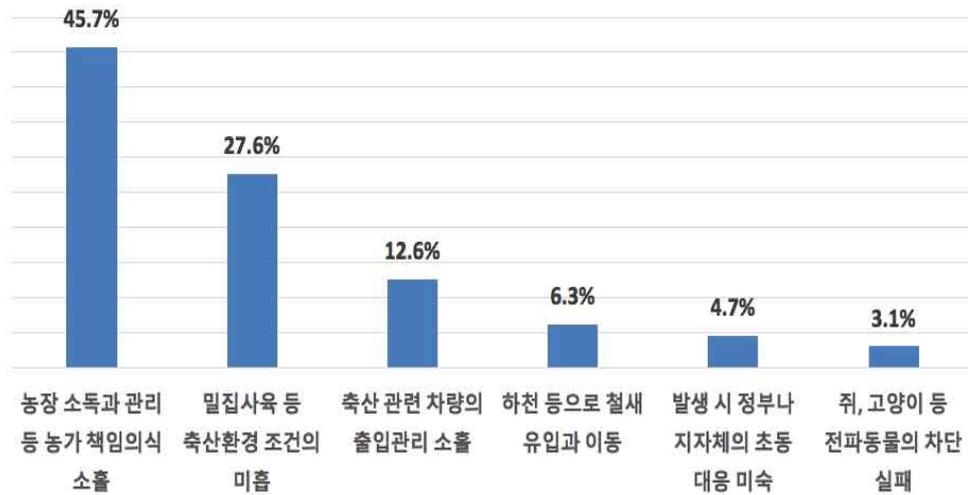


〈그림 3-5〉 농가 지도점검 방문 회수 및 질병 대비 수준

3-2) 단계별 조치사항 업무 : 발생 전 단계

● 고병원성 AI의 확산과 유행 주요 원인(〈그림 3-6〉 참고)

- AI 확산과 유행의 주요 원인으로 1순위는 농장 소독과 관리 등 농가 책임의식 소홀(45.7%), 2순위는 밀집사육 등 열악한 축산환경(27.6%), 3순위는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관리 소홀(12.6%), 4순위는 하천 등으로부터 철새 유입과 이동(6.3%), 5순위 정부나 지자체의 초동 대응 미숙은 4.7%
- 축산담당자들은 정부나 지자체보다는 농가 자체에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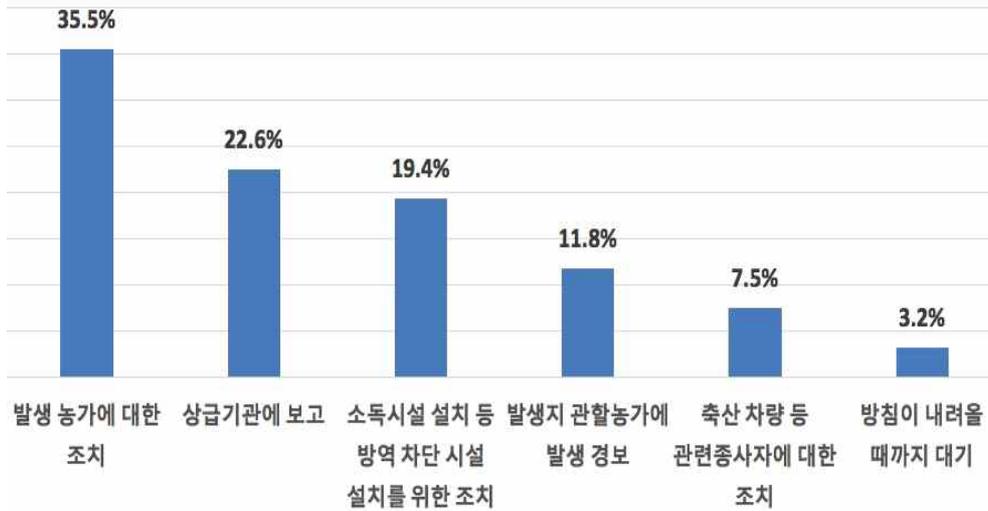


〈그림 3-6〉 고병원성 AI의 확산과 유행 주요 원인

3-3) 단계별 조치사항 업무 : 발생 후 단계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소식 접한 후 가장 먼저 한 일(〈그림 3-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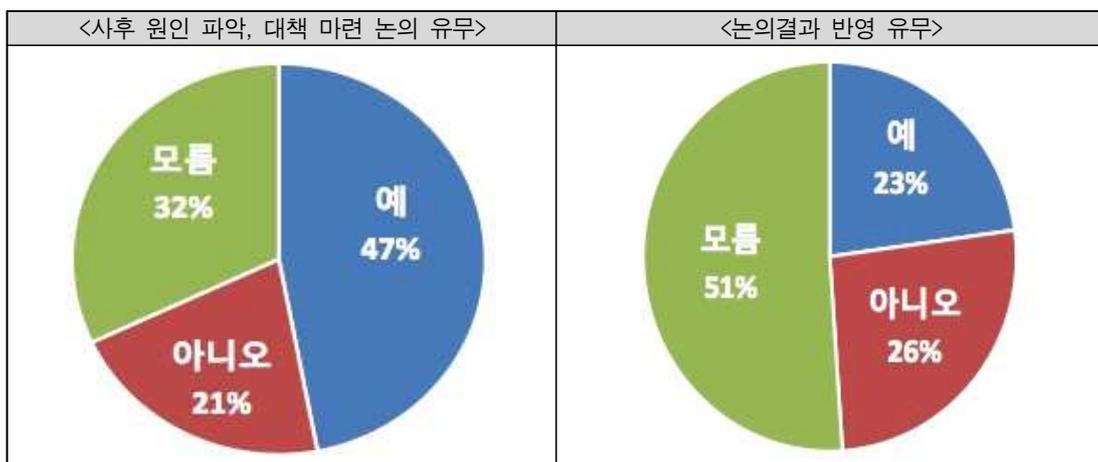
- AI가 발병 시 축산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발생농가에 대한 조치가 3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급기관에 보고가 22.6%, 소독시설설치 등 방역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조치가 19.4%, 발생지 관할 농가에 발생 정보가 11.8%로 그 뒤를 이음.
- 그러나 문제는 최초의 행동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주어진 설문항목이 상황 발생 시 초기에 수행해야하는 조치는 맞지만 일관된 대담으로 귀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행동을 다양하게 실행하는 것은 매뉴얼 상 최초 대응방안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그림 3-7〉 AI 발생 소식 접한 후 가장 먼저 한 일

● 사후 원인파악, 대책 마련 논의 유무와 논의결과 반영 유무(〈그림 3-8〉 참고)

- AI 사후 조치 유무와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AI 종료 후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 '사후 토론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32%
- 논의결과가 있다고 해도 반영하는 비율은 23%에 불과, 특히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51%
- 사후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향후 지침을 비롯한 각종 방역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3-8〉 사후 원인 파악, 대책 마련 논의 유무와 논의결과 반영 유무

3-4) 단계별 조치사항 업무 : 매몰 단계

● 현재 FRP 매몰 방식에 대한 만족도(〈그림 3-9〉 참고)

- 현재 FRP 매몰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 로 응답한 비율은 42.3%, 대체로 만족하는 편
- 긍정적인 비율(어느 정도 그렇다 20.6%, 매우 그렇다 11.3%)는 31.9% 수준
- 부정적인 비율(그렇지 않다 18.6%, 전혀 그렇지 않다 7.2%)는 25.8%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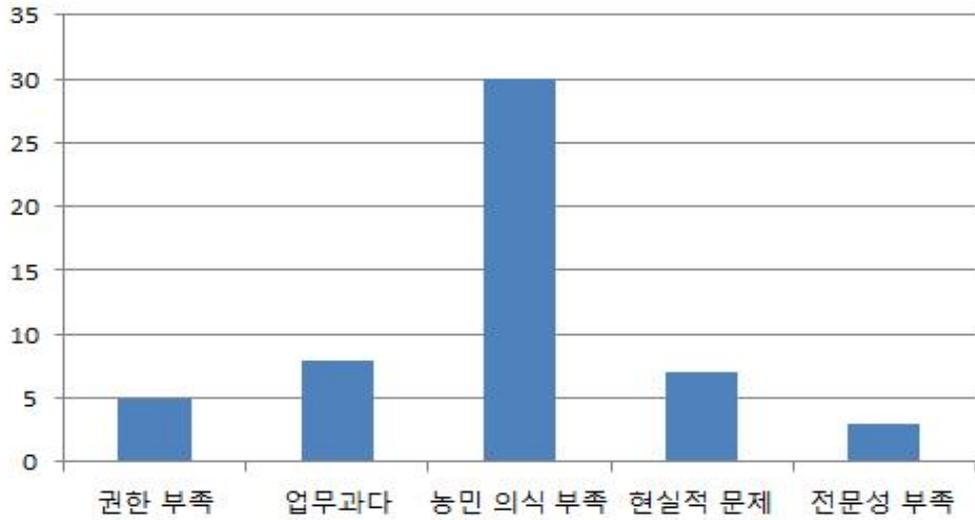


〈그림 3-9〉 FRP 매몰 방식에 대한 만족도

4) 기타 사항 : 강조할 정책사업, 우선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슈) 등

● 축산농가에게 매뉴얼 교육 및 실행 관리 감독의 애로사항(〈그림 3-10〉 참고)

- 공무원 등 축산담당자들에게 축산농가에게 매뉴얼 교육 및 실행 관리 감독의 애로 사항을 문의한 결과, 농민의 책임감, 절실함 결여, 위생 관련 부족 등 농민 의식 부족을 가장 많이 꼽음.
- 다음으로 업무 과다에 따른 농가 방문과 관리에 한계, 소규모 영세한 농가 현실 상 어렵다는 의견
- 그 외 권한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의견, 이는 농가에서 답한 공무원의 낮은 현장 이해도, 탁상공론, 요식 행위와 맞물려 있어 상호 의식 고취, 전문성 향상 등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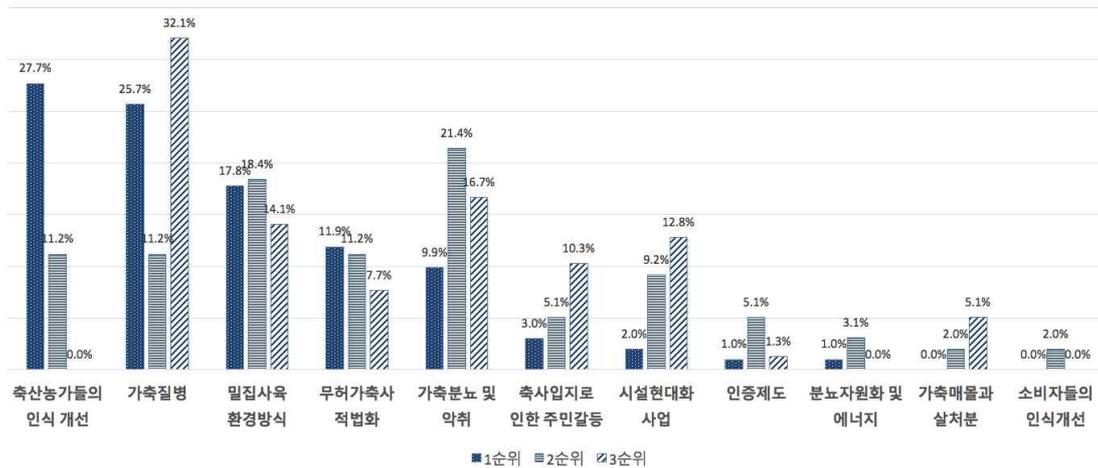


〈그림 3-10〉 축산 농가에게 매뉴얼 교육 및 실행 관리 감독의 애로 사항

● 축산분야에서 우선 해결이 필요한 과제(〈그림 3-11〉 참고)

- 1순위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축산농가들의 인식 개선, 가축질병, 밀집사육 환경방식,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순
- 2순위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가축분뇨 및 악취, 밀집사육 환경방식 등의 순
- 3순위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가축질병, 가축분뇨 및 악취, 밀집사육 환경방식 등의 순

축산분야 우선 해결 필요 과제(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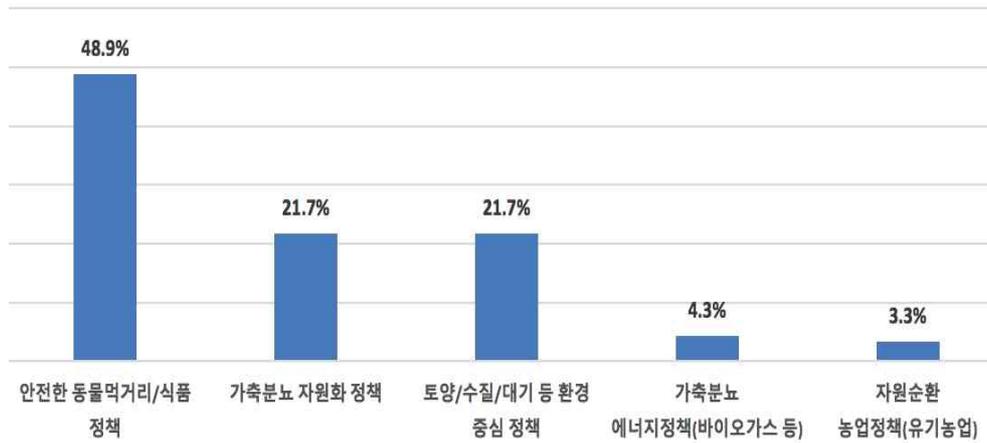


〈그림 3-11〉 축산분야 우선 해결 필요한 과제

● 향후 축산정책 중 강조되어야 할 정책사업(〈그림 3-12〉 참고)

- 향후 축산정책 중 강조되어야 할 정책사업으로서 1위는 안전한 동물먹거리 및 식품 정책(48.9%)
- 2위는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토양수질대기 등 환경 중심 정책 동순위
- 3위는 가축분뇨 에너지 정책, 4순위는 자원순환 농업정책 등의 순으로 응답

향후 축산정책 중 강조되어야 할 정책사업



〈그림 3-12〉 향후 축산정책 중 강조되어야 할 정책사업

3. 요약 및 시사점

- 충청남도의 축산 담당자(공무원 등)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축산 농가의 응답 결과와는 내 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축산담당자들은 스스로 AI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숙지 정도 측면에서 절반 이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매뉴얼 수행 여부에 따라 질병 발생 및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뉴얼 신뢰도가 떨어져서 약 37%만이 신뢰성 있다고 응답, 축산담당자들은 축산농가들이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이 해 정도뿐만 아니라 실천 정도에서도 잘 되지 않는다고 인식
 - 전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잘 실천하고 있다 고 대답한 데 비해서 축산담당자는 농가의식과 실천이 매우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함. 이는 축산농 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는 상황임.
-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교육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45%)하 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 형태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교육(45%), 체험형 실습교육(22%) 순으로 응답
- 점검 단계-발생 전 단계-발생 후 단계 등 단계별 조치사항
 - 점검 단계 : 축산담당자가 생각하는 평상시 농가의 질병 대비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것이 다수 의견
 - 발생 전 단계 : AI 확산과 유행의 주요 원인으로 농장 소독과 관리 등 농가 책임의식 소홀, 밀집 사육 등 열악한 축산환경,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관리 소홀, 하천 등으로부터 철새 유입과 이동, 정부나 지자체의 초동 대응 미숙 등의 순, 축산담당자들은 정부나 지자체보다는 농가 자체에 주원 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생 후 단계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소식 접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는 최초의 행동이 여 러 가지로 다양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매뉴얼 상 최초 대응방안이 정확히 명 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의미하기에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 발생 후 단계 : 사후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향후 지침을 비롯한 각종 방 역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논의 필요, 즉, 축산담당자 및 현장 전문가의 의사가 정책 및 지침에 반영되지 않음은 국내 AI의 반복 발생의 원인을 이러한 현실을 통해 일부 유추할 수 있음.
-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에 대한 애로 사항은 농민의 책임감, 철실함 결여, 위생 관령 부족 등 농민 의식 부족을 가장 많이 꼽음.

- 업무 과다에 따른 농가 방문과 관리에 한계, 소규모 영세한 농가 현실 상 어렵다는 의견, 권한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의견
- 이는 농가에서 답한 공무원의 낮은 현장 이해도, 탁상공론, 요식 행위와 맞물려 있어 상호 의식 고취, 전문성 향상 등 보완 필요
- 축산분야에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는 축사농가들의 인식 개선, 가축질병, 밀집사육 환경방식,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축산정책 중 강조되어야 할 정책사업은 안전한 동물먹거리 및 식품 정책,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환경중심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남.

04

충남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의 심층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 충청남도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의 방역실태 등 심층 설문조사 개요
 - 2017년 충청남도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방역의식 및 발생원인 자가진단, 사육환경 등 전반적인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목적 :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농가별 방역실태, 방역의식 및 발생원인 자가진단 파악, 농가교육 및 방역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17년 5월 16일 ~ 5월 24일(7일 간)
· 조사내용 : 방역실태(방역시설 운영현황, 방역의식, 방역추진사항 등), 책임의식과 발생원인 자가진단, 위탁농가/산란계/육계/오리/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사육환경 등
· 조사대상(부수) : 2014년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중 84호, 유의미한 응답자는 67호
· 조사방법 : 공무원이 1:1 직접 방문,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
· 조사주체 및 기관 : 충청남도 축산과 및 동물위생시험소
· 분석방법 : 빈도분석
· 활용자료 : 충청남도(2017),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심층 조사표
· 기타사항 : 자세한 조사내용과 항목은 부록3(설문조사지) 참고

- 충청남도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응답자)의 기초 현황(〈표 4-1〉 참고)
 - 근무자수는 총 67호 중 1-3명인 농장 43호(64.2%), 4-6명인 농장 11호(16.4%) 차지
 - 농장위치는 총 67호 중 천안시 41호(61.2%), 아산시 13호(19.4%) 차지
 - 가금류 축종별로 67호 중 닭 52호, 오리 15호, 세부 축종별로 닭의 경우 산란계 37호(55.2%), 종계 8호(11.9%) 등 차지, 오리의 경우 육용오리 7호(10.4%), 종오리 5호(7.5%) 등 차지

〈표 4-1〉 응답자 기초 현황

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비고
근무자수(명)	0명	3	4.5%	
	1-3명	43	64.2%	
	4-6명	11	16.4%	
	7-20명 미만	7	10.4%	
	20명 이상	3	4.5%	
	소계	67	100.0%	
농장위치(지역)	공주시	2	3.0%	
	논산시	4	6.0%	
	당진시	2	3.0%	
	부여군	1	1.5%	
	아산시	13	19.4%	
	천안시	41	61.2%	
	청양군	3	4.5%	
	홍성군	1	1.5%	
	소계	67	100.0%	
가금류 세부축종(농장수)	산란계	37	55.2%	
	종계	8	11.9%	
	육계	3	4.5%	
	토종닭	4	6.0%	
	종오리	5	7.5%	
	육용오리	7	10.4%	
	기타(메추리 등)	3	4.5%	
	소계	67	100.0%	

● 충청남도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응답자)의 사육현황(〈표 4-2〉 참고)

- 닭의 사육규모는 총 67호 중 50,000수 이상 농장 20호(29.9%), 미사육 농장 16호(23.9%) 등 차지
- 오리의 사육규모는 총 67호 중 미사육 농장 7호(10.4%), 10,000~30,000수 미만 농장 4호(6.0%) 등 차지
- 사육형태는 총 67호 중 케이지 31호(46.3%) 차지, 평사사육 24호(35.8%), 기타 12호(17.9%) 차지
- 방역시설은 차량소독 63호, 전실¹⁾ 42호, 고압분무기 7호, 대인소독기 6호 등 구비

〈표 4-2〉 응답자 사육 현황

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비고
사육규모(닭)	10,000 미만	2	3.0%	
	10,000~30,000 미만	7	10.4%	
	30,000~50,000 미만	4	6.0%	
	50,000 이상	20	29.9%	
	현재 미사육	16	23.9%	
	무응답	3	4.5%	
	소계	52	77.6%	
사육규모(오리)	5,000~10,000 미만	2	3.0%	

1) 주 : 전실(前室)이란, 가축방역시설 중 하나로써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하여야 함(축산법 시행령 중 축산업 허가기준)

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비고
	10,000~30,000 미만	4	6.0%	
	현재 미사육	7	10.4%	
	무응답	2	3.0%	
	소계	15	22.4%	
사육규모(닭+오리)	합계	67	100.0%	
사육형태	케이지	31	46.3%	
	평사사육	24	35.8%	
	기타	12	17.9%	
	소계	67	100.0%	
방역시설(중복응답)	고압분무기	7		
	대인소독기	6		
	전실	42		
	차량소독	63		
	분변처리장치	1		
	인체소독	4		
	개인소독실	0		
	외부물품반입창고	1		
	소계	124		

● 충청남도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응답자)의 가축질병 발생 현황(〈표 4-3〉 참고)

- 닭의 AI 발생연도는 2014년 14호, 2015년 3호, 2016년 39호, 2017년 11호, 살처분 규모는 50,000수 이상 28호(41.8%), 10,000~30,000수 미만 11호(16.4%) 차지
- 오리의 AI 발생연도는 2014년 3호, 2015년 2호, 2016년 7호, 2017년 3호, 살처분 규모는 5,000~10,000수 미만 7호(10.4%), 10,000~30,000수 미만 6호(9.0%) 차지

〈표 4-3〉 응답자 가축질병 발생 현황

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비고
AI 발생연도(닭)	2014	14	20.9%	
	2015	3	4.5%	
	2016	39	58.2%	
	2017	11	16.4%	
	소계	67(52)	100.0%	중복응답 발생
살처분 규모(닭)	10,000 미만	2	3.0%	
	10,000~30,000	11	16.4%	
	30,000~50,000	8	11.9%	
	50,000 이상	28	41.8%	
	무응답	3	4.5%	
	소계	52	77.6%	
AI 발생연도(오리)	2014	3		
	2015	2		
	2016	7		
	2017	3		
	소계	15		
살처분 규모(오리)	5,000 미만	1	1.5%	
	5,000~10,000	7	10.4%	
	10,000~30,000	6	9.0%	
	50,000 이상	1	1.5%	
	소계	15	22.4%	

2. 분석결과

1) 방역실태 현황

- 차량 소독필증 및 GPS 장착여부 확인 여부, 발생시기 차량 소독필증 보관의무 인지 여부 (〈표 4-4〉 참고)

- 차량 소독필증 및 GPS 장착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 응답은 55호, '모르고 있음' 응답은 9호, 부정확/모름 응답은 2호, 무응답 1호
- 차량 소독필증 보관의무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 응답은 42호, '모르고 있음' 응답은 1호, 무응답 24호

〈표 4-4〉 차량 소독필증 등 세부사항 관리 여부

설문문항	구분	빈도수(호)
차량 소독필증 및 GPS 장착 확인 여부	알고 있음	55
	모르고 있음	9
	부정확/모름	2
	무응답	1
	소계	67
차량 소독필증 보관의무 인지 여부	알고 있음	42
	모르고 있음	1
	부정확/모름	0
	무응답	24
	소계	67

- 세부 방역조치 및 출입통제 관리 여부(〈표 4-5〉 참고)

- 고압분무기 이용하여 차량바퀴 및 외부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실시한다' 응답은 63호, '실시 안 한다' 응답은 3호, 무응답 1호,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미기재
- 운전자 방역조치(운전석 소독, 비닐 등)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조치한다' 응답은 55호, '방역조치 안 한다' 응답은 10호, 부정확 응답 1호, 무응답 1호
- 외출 후 작업복 교체, 신발세척 및 소독, 손씻기 여부에 대해서는 '실시한다' 응답은 65호, '실시 안 한다' 응답은 1호, 무응답 1호
- 외부인(택배, 우체국, 주민)의 농장출입 통제 여부에 대해서는 '통제한다' 응답은 61호, '통제 안 한다' 응답은 5호, 무응답 1호

〈표 4-5〉 세부 방역조치 및 출입통제 관리 여부

설문문항	구분	빈도수(호)	
고압분무기 이용하여 차량바퀴 및 외부 소독 실시 여부	한다	63	
	하지 않는다	3	
	무응답	1	
	소계	67	
운전자 방역조치 실시 여부	한다	55	
	하지 않는다	10	
	부정확/모름	1	
	무응답	1	
소계		67	
	외출 후 작업복 교체, 신발세척 및 소독, 손씻기 여부	한다	65
		하지 않는다	1
		무응답	1
소계		67	
외부인의 농장출입 통제 여부	한다	61	
	하지 않는다	5	
	무응답	1	
	소계	67	

● 소독약 희석배수

- '설명서대로' 응답은 33호, '2배 희석' 응답은 24호, '3배 희석' 응답은 3호
- 그 외에 부정확한 응답 5호, 무응답 2호

● 소독실시기록부, 출입기록부 작성여부, 작성주체, 출입자의 작성여부 관리감독 여부

- 작성여부 :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기록부를 작성한다' 응답은 66호, 압도적으로 많음
- 작성주체 : 농장주 28명, 농장주 가족 7명, 직원 3명, 출입자 20명, 혼합(출입자와 농장주) 7명, 무응답 2명
- 관리감독 여부 : '관리감독한다' 응답은 38호, 무응답 29호

● 마당청소 및 소독실시 주기(〈표 4-6〉 참고)

- 마당청소 주기는 주 1~2회가 23호로서 가장 많았고, 일 1~2회가 18호, 주 3~4회가 12호 차지
- 소독실시 주기는 주 1~2회가 14호로서 가장 많았고, 일 1~2회가 5호 차지

〈표 4-6〉 마당청소 및 소독실시 주기

마당청소 주기		소독실시 주기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수시	3	수시	-
일 1~2회	18	일 1~2회	5
주 1~2회	23	주 1~2회	14
주 3~4회	12	주 3~4회	1

마당청소 주기		소독실시 주기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 5회 이상	-	주 5회 이상	1
월 1회	1	월 1회	-
부정확/모름	9	부정확/모름	-
무응답	1	무응답	46
소계	67	소계	67

● 야생조류 및 동물 등 차단시설 설치 여부(〈표 4-7〉 참고)

- 야생조류 차단 위해 그물망 및 축사구멍 보완 여부에 대해서 '한다' 응답은 55호 차지
- 야생동물(고양이, 쥐) 차단 위해 축사주변 생석회 도포여부에 대해서 '한다' 응답은 60호 차지
- 구서관리(살서제, 미끼통 등)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한다' 응답은 60호 차지

〈표 4-7〉 야생조류 및 동물 등 차단시설 설치 여부

설문문항	구분	빈도수(호)
야생조류 차단 위해 그물망, 축사구멍 보완 여부	한다	55
	하지 않는다	2
	부정확/모름	8
	무응답	2
	소계	67
야생동물 차단 위해 축사주변 생석회 도포 여부	한다	60
	하지 않는다	5
	부정확/모름	1
	무응답	1
	소계	67
구서관리(살서제, 미끼통 등) 설치 여부	한다	60
	하지 않는다	2
	부정확/모름	4
	무응답	1
	소계	67

● 축사별 전용 방역복 및 장화 착용 여부와 미착용 이유(〈표 4-8〉 참고)

- '착용한다' 응답은 57호로서 대부분 실시하는 편, '착용하지 않는다' 응답은 8호에 불과

〈표 4-8〉 축사별 전용 방역복 및 장화 착용 여부, 미착용 이유

설문문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전용 방역복 및 장화 착용 여부	한다	57	-
	하지 않는다	8	농장 내 전용 작업복 및 전용장화 별도 착용, 번거로움, 시간적으로 어려움, 왕겨 살포기가 매일 계사별 출입, 전용장화 사용하고 축사별 방역복 착용은 현장여건상 어려움 등
	부정확/모름	1	향후 마련 계획
	무응답	1	-
	소계	67	-

● **축사별 발판소독조 구비 여부 및 소독약 교체주기(〈표 4-9〉 참고)**

- 발판소독조 구비 여부는 '구비한다' 응답은 66호로서 거의 전 농가 실시
- 발판소독조 소독약 교체주기는 일 1-2회가 26호, 주 3-4회가 20호 차지

〈표 4-9〉 축사별 발판소독조 구비 여부 및 소독약 교체주기

설문문항	구분	빈도수(호)
발판소독조 구비 여부	한다	66
	무응답	1
	소계	67
발판소독조 소독약 교체주기	일 1-2회	26
	주 1-2회	17
	주 3-4회	20
	월 2회	1
	월 3회	1
	부정확/모름	1
	무응답	1
	소계	67

● **축사 내외부 장비 소독 실시 여부와 소독주기(〈표 4-10〉 참고)**

- 축사 내외부 장비(왕겨살포기 등)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해서 '한다' 응답이 54호로서 대부분 실시
- 축사 내외부 소독주기에 대해서 주 1-2회가 11호, 주 3-4회가 10호 차지

〈표 4-10〉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여부와 소독주기

설문문항	구분	빈도수(호)
내외부 장비(왕겨살포기 등) 소독 실시 여부	한다	54
	안 한다	6
	부정확/모름	5
	무응답	2
	소계	67
내외부 장비(왕겨살포기 등) 소독주기	수시	4
	일 1-2회	5
	주 1-2회	11
	주 3-4회	10
	월 2회	2
	월 3회	2
	부정확/모름	7
	무응답	26
	소계	67

● **축사 내부 장비 소독활동 관련 사항(〈표 4-11〉 참고)**

- 축사 내부 장비(수레, 물이망) 반입 시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한다' 응답이 49호 차지
- 출하 시 상처반 방역복 및 장화착용 확인 여부는 '한다' 응답이 61호로서 대부분 착용하는 편

〈표 4-11〉 축사 내부 장비 소독활동 관련 사항

설문문항	구분	빈도수(호)
축사 내부 장비(수레, 물이망) 반입 시 소독 실시 여부	한다	49
	하지 않는다	7
	부정확/모름	8
	무응답	3
	소계	67
출하 시 상차반의 방역복 및 장화착용 확인 여부	한다	61
	하지 않는다	3
	부정확/모름	2
	무응답	1
	소계	67

● 매일 폐사체 수거 및 적절히 폐기 실시 여부와 폐기방법(〈표 4-12〉 참고)

- 폐사체 수거 및 적절한 폐기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한다’ 응답이 65호로서 대부분 실시하는 편
- 폐기방법에 대해서는 계분처리 20호, 매몰처리 16호, 혼합처리(계분처리와 매몰처리) 8호 차지

〈표 4-12〉 폐사체 수거 및 폐기 실시 여부, 폐기방법

설문문항	구분	빈도수(호)
매일 폐사체 수거 및 적절한 폐기 실시 여부	한다	65
	부정확/모름	1
	무응답	1
	소계	67
폐기방법	계분처리	20
	매몰처리	16
	혼합처리(계분,매몰)	8
	소각, 폐기물처리	8
	분뇨, 퇴비화처리	11
	기타	1
	부정확/모름	1
	무응답	2
	소계	67

● 계분 작업 후 항상 소독 및 세척실시 여부, 생계분 인근발 살포여부(〈표 4-13〉 참고)

- 계분 작업 후 소독 및 세척실시 여부는 ‘한다’ 응답이 59호로서 대부분 실시하는 편
- 생계분 인근발 살포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처리 27호, 미살포 8호, 소독처리 3호 순으로 응답

〈표 4-13〉 계분 작업 후 소독 및 세척실시, 살포 여부

설문문항	구분	빈도수(호)
계분 작업 후 소독 및 세척실시 여부	한다	59
	하지 않는다	4
	부정확/모름	3
	무응답	1
	소계	67
생계분 인근발 살포 여부	업체처리	27
	소독처리	3
	미살포	8
	발살포	2
	부정확/모름	7
	무응답	20
	소계	67

● 임상증상·폐사(산란)일자·사료입고·약품사용 등 각종 기록활동 여부, 종사자(외국인) 외출관리 여부와 외출관리 안하는 이유(〈표 4-14〉 참고)

- 임상증상·폐사·일자·사료입고·약품사용 등 각종 기록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한다’ 응답이 62호로서 대부분 실시하는 편
- 종사자(외국인) 외출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한다’ 응답이 28호, ‘하지 않는다’ 응답이 23호로서 절반 정도가 하지 않는 편

〈표 4-14〉 각종 기록활동 및 외출관리 여부

설문문항	구분	빈도수(호)
임상증상·폐사(산란)일자·사료입고·약품사용 기록여부	한다	62
	하지 않는다	1
	부정확/모름	3
	무응답	1
	소계	67
종사자(외국인) 외출관리 여부	한다	28
	하지 않는다	23
	부정확/모름	15
	무응답	1
	소계	67
외출관리 안하는 이유	외출금지	6
	외출없음	9
	직접관리	10
	미관리	2
	부정확/모름	1
	무응답	39
	소계	67

● 방역활동 중 제일 자신있는 사항(나만의 방역활동 팁)(〈표 4-15〉 참고)

- 철저한 소독이 24호, 출입 및 접촉 통제가 9호, 작업복과 신발 구분하고 청소 및 환경개선이 각 4호를 차지

〈표 4-15〉 나만의 방역활동 팀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철저한 소독	24	연막소독기 병행사용, 단계별 철저한 농장소독 실시. 철저한 전실 관리, 겨울철에도 열선(전기)활용 소독 실시, 고가의 소독약 사용, 원칙에 입각한 소독 실시, 농장 주변 및 내부 소독, 농장 진입시 샤워후 환복, 농장 초입 소독 실시, 농장자체 소독차량(1톤) 보유, 매일 주기적으로 축사외부 소독, 사료차 내부 소독, 생석회 많이 사용(축사내부), 차량 소독 시설에서 왕복 3회 실시, 소독약 사용(NP, ZB), 차량진입 3번에 걸쳐 방역, 일회용 방역복 철저히 착용, 축사내부 반자동 안개 분무 시설 사용, 병아리 모계 정보 파악한 뒤 처방, 파레트 소독, 훈증소독 실시 등
소독과 출입통제	2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 위험시기 차량 통제 철저, 분무기로 직접 소독 등
작업복과 신발 구분	4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샤워 환복→농장진입→환복→장화교체→전실 거쳐 계사 진입토록 철저히 관리 중, 작업장 내 밖 신발 구분 철저, 축사 출입시 장화소독 철저/구분 사용 등
출입 및 접촉통제	9	AI 발생 시 외출 자제, 상차반(계란) 농장인부 분리 관리 운영, 철저한 외부인 및 차량 통제 철저(축주가 농장내에 있을 시에만 농장출입가능), 외부인 접촉 금지 등 철저이행, 전동분무기 이용 축사내 공기 정화 중, 외부인 철저 차단, 무창계사, 직원교육 등
청소 및 환경개선	4	급수라인 청소 철저(주 1회), 매일 청소, 주변 잡초 제거, 환기 및 사료 관리, 주변환경 철저 관리, 축사 위치가 도로변인 관계로 소독 및 축사주변 청소 철저 등
기타	4	영양제 및 생균제 등 동물약품투여, 파리 등 해충방제/제거 방법, 폐사체는 즉각매몰, 폐기물처리기 설치, 계절사육(겨울철 미사육), 농장주 수기 일일 기록 등
부정확/모름	16	-
무응답	4	-
소계	67	-

●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방역조치 활동(〈표 4-16〉 참고)

- 대부분 방역조치 활동을 미실시한다고 응답(31호), 소독설비 및 소독활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16호)

〈표 4-16〉 중요하지만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방역조치 활동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소독설비 및 소독활동	16	장비(왕겨살포기)의 계사별 소독, 계분 배출시설 출입구 등 별도 관리 필요하나 소독설비 미흡, 계분차나 식용란차의 소독이 사료차에 비해 미흡, 사료차 내부소독 미비, 소독주기 단축(현재 주1회에서 매일), 왕겨살포기 통별 사용 후 소독필요, 일반차량 소독, 차량 소독시설 부실(개선 예정), 차량 출입구 3m 이상 및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인데 못하고 있음, 축사 내 안개분무시설 개선 후 소독에도 활용할 계획, 축사외부 소독 전용장비(SS기) 구입, 큰길 인접(도로 방역 요청), 파레트 소독 등
미실시	31	-
청소 및 환경개선	1	외부 수도관 청소 이후 철저히 하려고 함
해충제거	2	구서, 출입차량 및 직운에 의한 전파는 없다고 생각하며 야생동물들(들고양이, 들쥐 등)에 의한 전파가 우려되나 방역조치 어려움 등
사료벌크시설분리	2	사료 벌크 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했으면 하었는데 부지 사정상 내부에 설치한 것이 아쉬움, 사료벌크통 및 출하장 축사 외부에 설치 필요 등
신고활동	2	신고
작업복신발교체	4	계사 들어가기 전 옷 교체, 계사별 장화 갈아신기, 축사별 방역복 교체 착용, 호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부정확/모름	4	공기전파로 막을 방법이 없음, 공중살포 방제가 요청 등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무응답	5	-
소계	67	-

● 중요한 방역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표 4-17〉 참고)

- 중요한 방역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중요성 미인식, 시간과 관심부족 순으로 응답

〈표 4-17〉 중요한 방역조치 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경제적 이유	4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감, 금액 고가, 장비 구입 비용 때문 등
시간, 관심부족	3	계사 들어가서 할일 많지 않음, 논농사 정미소운영 등 시간 부족, 잦은 출입 등
중요성 미인식	4	번거로움, 출입 관리 등 어려움, 현실적 어려움(매우 번거로움) 등
눅장신고	2	시 신고(농가가 늦게 신고), 눅장신고(보상금 차등 관련) 등
야생동물접촉	2	농가에 총포사용 허가 등 필요하다고 생각, 야생동물 친입 방제 등
주변민원	1	바람에 날려 주변 농가 민원 발생 등
부정확/모름	1	-
무응답	50	-
소계	67	-

● 내(농장주)가 하고는 있지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방역조치(〈표 4-18〉 참고)

- 내가 하고는 있지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방역조치로서 소독약 및 소독활동이 26호 차지

〈표 4-18〉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방역조치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소독약, 소독활동	26	거점 소독 시설(전염원이 될 수 있음), 겨울철 소독 실시 대비 효과 의문, 과립형 생석회 효과 떨어짐(고순도 생석회 지급 요청), 발판소독조, 소독약 효과 등 모두 의심, 소독약 교체, 써라텍-효능 저하품 사용, 소독약 희석배수 효과 의심, 소독약(소독약품) 신뢰도 저하, 효과검증 약품 선정 필요, 외부소독, 전실(설치하고 효과 없음), 축사외부 소독에서 축사 내부소독을 철저히 해야 함, 터널식 소독기를 설치하였으나 기존 소독기와 소독효과는 비슷, 파레트 소독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며 스팀소독 필요, 겨울철 소독효과 낮은 상태에서 거점소독시설은 바이러스의 집중으로 오염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등
해당없음	25	-
차단망설치, 청소	4	계분장 차단망 설치는 비효율적, 밀폐식 계분장이 설치되어야 하나 효과는 미지수로 보임, 계분처리장 그물망 설치, 고양이에 대한 방역(야생동물 농장 출입차단방역 필요), 빈 축사 청소 등
생석회 도포	3	생석회 도포,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도포를 형식적으로 밖에 못함 등
행정절차	1	많은 종류의 방역관리 서류 등
전화예찰	2	각 담당부처마다 전화예찰 실시 등
부정확/모름	1	-
무응답	5	-
소계	67	-

● 타 농장으로부터 배워야 할 방역조치(〈표 4-19〉 참고)

- 타 농장으로 배워야 할 방역조치는 43%가 해당없음으로 응답(29호), 그 외 소독설비 및 활동(9호), 시설현대화(6호), 출입 및 접촉통제(5호) 순으로 응답

〈표 4-19〉 타 농장으로부터 배워야 할 방역조치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시설현대화	6	타 농장 현대화시설(무창계사 등), 계란출하장 외부설치 필요, 무창계사로 환기 자동화 시설, 사료/계란/계분차 자체 구비, 현대 계사화와 동물복지 시스템 구축, 현재 농장에서 운용중이나 타 농장도 전실관리와 HACCP 운용 필요 등
해당없음	29	-
청소 및 환경개선	1	농장정결
출입 및 접촉통제	5	동절기 농장 밖 출입자제, 외부인 차량 통제 등
기본방역조치	3	기본적인 방역조치(사람, 차량통제, 소독 등)하면 특별히 배울 것 없음, 노인처럼 옷을 갈아입힘, 겨울철 백신 미접종, 사료빈 외부 세차, 샤워실 및 옷 신발 관리 철저 등
자부심(본인 훌륭)	2	본인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 등
소독설비 및 활동	9	강원 황성 박병환 농장의 파레트 스팀 소독, 계사 출입자 샤워 실시(계사별 샤워실 구비), 대인소독기 설치, 방역시설(샤워실) 설치, 스팀을 이용한 세차소독, 차량소독 자동화 시설 등
부정확/모름	3	소통안 됨, 노하우 공유하지 않음, 타 농장 여건 모름, 타농장 방문사실 없음
무응답	9	-
소계	67	-

● AI 발생 시 시·군(도, 농식품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표 4-20〉 참고)

- AI 발생 시 행정기관의 잘한 점은 44.7%가 해당없음으로 응답(30호), 신속처리(15호), 방역활동(11호) 순으로 응답
- AI 발생 시 행정기관의 못한 점은 살처분 및 보상금 처리(23호), 방역활동 미흡(18호), 현장지휘체계 미흡(9호) 순으로 응답

〈표 4-20〉 AI 발생 시 행정기관의 잘한 점과 못한 점

설문항목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잘한 점	방역활동	11	거점소독시설 등 통제초소 운영, 발생 시 매몰지 알선 등 방역업무 원활히 진행, 발생농장 통제인력(방역본부) 배치로 이동통제 완벽, 생축(알) 이동시 검사, 소독약품 적기 공급, 신고 접수 및 시료 채취 등 신속한 초동 방역 노력, 살처분 처리, 확산방지, 조기 살처분 등
	해당없음	30	-
	신속처리	15	구정 전 보상금 일부 지급, 매몰 신속 처리, 발생 시 일사천리 진행, 시한(겨울철 사육 제한후 보상지급), 신속한 살처분 처리, 알람문자 등을 통해 발생상황 등을 빠르게 전달 해 줌,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출동 및 시료채취, 인력 및 장비 신속한 지원, 지자체 하루 실무자가 현장일 잘 하고 있음, 정부 및 시에서 초동대응 잘함, 초동방역 빠름(농장 차단), 아산시 초기 대응(살처분 조치 등) 등
	적극적 의견수렴	1	농가 의견 적극 반영
	지침대로 이행	1	매몰절차 준수(아산시)
	부정확/모름	2	갑질만 했음 등
	무응답	7	-
	소계	67	-
못한 점	살처분, 보상금 처리	23	과도한 살처분,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안 되어 오염 확산(살처분 조치 지연), 발생 시 살처분 현장 작업 효율성 부족(살처분 등 참여 인력 사용), 방역 철저히 했음에도 발생 시 보상금 삭감, 외부인 합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일부신고 미비 이유로 보상금 삭감, 보상금 잔액 미지급, 보상금 지연으로 생계 어려움, 살처분 과정 중 분진 발생, 거점소독시설 관리 미흡, 살처분 실시 중 발생농장 관리(인접도로 통제), 살처분 용역인원 중점관리, 살처분

설문항목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인력 방역관리 미흡, 방역인력 부족, 신속배치 불가, 살처분 지연으로 인한 계란 가격 보상관계 미흡(현시세가 보상 현실화 필요) 및 폐사축 마대를 농장에 쌓아 놓는 등 현상 발생, 살처분 투입인력 관리 소홀, 살처분 현장 지휘 감독 불신, 지연 살처분 집행(주변 발생농가 살처분 7일 소요), 살처분 후속조치 미흡, 발생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지원사업 배제(보조사업은 모르겠으나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지원 필요), 살처분 인력부족 및 차량 관리 미흡(소독이 제대로 안되고 그 차량으로 출퇴근해 전파 확산), 소독약 사료 등 품질검사 신뢰하기 어려움, 일용인부 동원 등으로 살처분 체계 부족, 주변 양성농가 살처분 지연, 주변농장 시발생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신청했으나 받아주지 않다가 농장에 시 발생, 천안시 살처분 지연 등
	해당없음	8	-
	현장지휘체계 미흡	9	간부급 직원 현장 지휘를 잘 못하고 있음, 농가에할 담당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아 농가에 혼란 가중, 여러 농장 방문 시 매물 용역인 관리 미흡, 발생 농장에 대한 지원 제한, 신속한 대응 부족, 농가책임 전, 역학조사 시 필드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검역 본부)이 인터뷰 함에 따라 신뢰도 저하, 타측사 방문, 적시 인력 투입 미진, 행정적으로 숫자개역 다름, 도계량 양성(회의 미 개최), 매물지 잘못(땅이 없으면 임대해서 매물했어야 함) 등
	방역활동 미흡	18	거점소독소 운영 실패, 발생농가 주변 도로 방역 미흡, 거점소독시설 운영 반대(오염가능성), 공급 소독약제 선택 잘못(무효과), 농장 출입시 방역조치 미흡(차타고 농장 앞까지 진입), 도로면 소독 시설이 너무 적어서 도로방역 미비, 출하 전 검사로 인한 전파 의심, 마을(농장) 초입 등 초소 설치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살처분 축을 1주일간 마당에 방치, 발생시 10km 이내 이동제한, 방역 실패 원인을 농가 책임으로만 몰고 감, 방역초소(통제초소) 미설치, 살처분 인력과 장비소독 등 소독 활동 미흡, 시중 유통되는 소독약품 검증, 주변농가 알 이동제한 조치, 과도한 이동제한(주변농가, 역학농가), 4일간 물고(시간지체) 미처분 닭이 돌아다닐 정도로 초동방역 부실, 최초 발생농가 규제 철저 필요, 살처분 인력관리 안함, 형식적인 조사 초동방역(주변소독 등) 미흡,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로 인한 전파 가능(무방비), 예전에 차량 모주가 소독했으나 요즘에는 없음 등
	비협조적 태도	3	농가 패널리 부과만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안 함, 행정 조치가 농장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압적, 현장 직원에 대한 배려 없음 등
	부정확/모름	1	-
	무응답	5	-
	소계	67	-

● 정부에게 향후 바라는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표 4-21〉 참고)

- 정부에게 향후 바라는 사항은 방역지원 문제(26호), 보상금 문제(11호), 정보제공과 소통 문제(11호), 백신공급 및 개발 문제(8호), 규제 개선(5호) 순으로 희망
- 정부가 향후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보상금 지양 및 삭감(9호), 살처분 정책(8호), 방역활동(7호), 규제강화 및 탁상행정(7호), 삼진아웃제(4호) 순으로 희망

〈표 4-21〉 정부에게 향후 바라는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설문항목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정부에서 향후 바라는 사항	해당없음	1	-
	방역지원 문제	26	(효과있는) 소독제 지원, 시 발생 시 도로 소독 등 소독 강화, 도로 차단 방역, 발생농장 인접도로 통제, 초동방역 철저, 초기 방역대응 철저(통제 및 소독), 강제 살처분 금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관리지역 백신 접종 및 관리지역 내 전 농가 살처분

설문항목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지양, 농장 초입(마을 입구) 소독초소 설치 및 소독약 지원, 매 발생지역(풍세천 인근) 내 농장 이전 수용, 발생 전 예방차원 소독 필요, 방역 매뉴얼 제작 공급, 방역교육 시 소독약 희석 배수 등 교육, 예방적 살처분 대신 도계출하 실시, 살처분팀 사전 준비, 방역시스템 구축(장비, 인력 등), 방역요원 증원으로 확산 방지, 방역체계 근본적 수정, 신속한 살처분 시행, 소독기 등 방역기자재/차단방역장비 지원 확대, 예찰 검사 시 발생 수준 검사, 정문 소독기(터널식) 지원, 철새 도래기 및 하천 주변 군 소독 필요(집단 창고 등), 파레트 및 축산차량 스팀소독 실시, 군인 동원 통한 신속한 살처분, 효과 입증된 소독약 지원 등
	보상금 문제	11	3km 이내 농가 계란 폐기 후 보상(70%-80%보상), 중추(12000~13000) 가격 고려, AI 발생농장 보상금 80% 지급 신중 검토, AI 발생 예상시기 사육하지 말게 하고 대신 생활자금 지급, 무허가축사 양성화로 AI 발생농장 피해 최소화, 발생농장 소독약 지원 필요, 위탁농가는 생계 안정자금 및 입식 자금 지원 필요, 신속하고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공백기 생활유지 및 직원 월급 지급), 시세 반영한 단가 적용, 휴지기간 중 생활보조금/생활안정자금 지원 현실화 등
	백신 공급 및 개발 문제	8	AI 백신 개발과 공급, AI 백신정책 도입, 재입식절차 완화, HPAI 백신 개발, 백신 치료제 개발, 바이러스 검출기법, 기기의 농가공급, 정부 품질검사(사료, 소독약)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해외(미국,독일)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검사 실시 요청, 전 가금농가에 대한 AI 백신 실시 등
	규제 개선	5	규제완화(재입식과정도 너무 까다로움), 신고지연 농가 페널티 적용 확행, 재입식 절차 간소화(살처분 일자순으로 재입식, 단절 기간이 너무 길다), 휴식년제 활용 등
	정보제공 및 소통 문제	11	AI 검출 등 신속한 홍보, 농 축협 금융상품(대출) 금리를 농가 수준에 맞게 대폭 하향, 농가 건의사항 적극 수용, 농장의 힘든 점 파악해서 지원, 민관 간 신속한 처리 시스템 구축(중앙 지방 간 등), 발생 후 신속한 조치로 입식 등 제반절차 속행, 사양 및 방역 등 신기술 홍보 교육, 전문적인 방역공무원 육성과 평소 농가와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탁상행정이 아닌 생산자와 전문가 등과 같이 정책 마련, 현장 상황을 아는 진짜 담당자가 현장 지휘하고 신속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기타	3	계분처리, 농가 및 계열사 관리 : 계분 처리 방안 마련, 발생농가에 대한 지원 배제 완화, 계열농장과 위탁사육농장과의 부당한 계약체결에 대하여 지도점검, 차단방역 차질 없도록 조치(운영비 적기지급), 계열사 관리 등
	무응답	2	-
	소계	67	-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	해당없음	18
	살처분 정책	8	3km 내 예방적 살처분 정책, 과도한 살처분 정책,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 살처분 관계인 적극 행동, 살처분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산, 살처분 인력 및 차량 관리 철저, 예방적 살처분 정책, 원칙없는 살처분 정책 등
	보상금 지양, 삭감	9	AI 발생농가 정부 지원사업 배제, 발생농장 80% 보상금 지급 지양, 방역 철저히 했음에도 발생시 보상금 삭감 말아야함, 보상 신속 집행, 보상금 삭감(80% 미만), 보상금 삭감(삭감 기준 명확화 필요), 신속한 보상금 지급으로 공백기 생활유지 필요(직원 월급 지연 초래) 등
	삼진아웃제	4	삼진 아웃제라는 패널티 등
	방역활동	7	이동제한조치, 출입 및 접촉자제, 전화예찰 : 가만히 있어라, 발생시기 방문 자제, 빈번한 전화 예찰, 예찰전화 일원화 필요, 일방적인 농가 책임 전가, 현실에 맞는 이동제한 조치 시행(계란운반차량 진입금지 등 실효성 없음), 현재 방식의 겨울철 거점소독 시설(스팀소독 필요) 등
	규제강화,	7	사육면적 규제(갑작스러운 적용보다는 서서히 적용할 수 있는

설문항목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탁상행정		유예기간 필요), 정부규제 완화, 정부 관여 줄여야 함(예 : 계란값 상승 등 가격관리), 정책을 머리로만 떠들지 말고 발로 만들어 줬으면 함, 출하 전 초생추검사 폐지(너무 형식적), 탁상행정 지양(현장업무와 불일치) 등
	기타	7	농가 책임전가, 패널티, 교육, 시설지원 : 농가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 지양, 농민 입장에서 추진, 일방적인 농가 책임 전가, 정책추진과 발생농가 패널티 부여는 방역부분 포함 안 됨, 집합 교육 자제, 축사시설 현대화 등 규모 대형화 등
	무응답	7	-
	소계	67	-

● 농장 개선 사항, 시설개선(전실, 샤워실) 또는 각종 방역조치 방법 등(〈표 4-22〉 참고)

- 농장에서 개선할 사항 및 방역조치 방법으로서 전실(18호), 소독설비 및 소독활동(13호), 그 외 각종 사료벌크, 샤워실, 출하장 등 시설보완(10호) 순으로 응답

〈표 4-22〉 농장 개선사항 및 각종 방역조치 방법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해당없음	14	-
전실	18	계사별 전실 및 시설현대화, 전실 등 시설보완 및 개선, 전실 및 그물망 설치, 전실 및 외부인 샤워실 설치, 전실현대화 추진, 전실 및 환기시설 설치, 전실 및 식란보관창고 외부 준비 등
각종 시설보완	10	사료 벌크 외부 설치, 샤워실 설치, 터널식 개수, 시설개선(특이 개선점은 모름), 축사현대화(무창계사 등), 출하장 분리, 현재 사육품종 변경으로 (오리->닭)으로 시설개선 보완 중, 환기문제 해결 위하여 환기시설 보강 및 환기시스템 교체 등
소독설비 및 소독활동	13	2.2m 높이 강판 울타리 설치, 축사 옆 사료빔 이전, 터널식 차량 소독시설 설치, 전실 내 장판 설치 구획, 계란집하장 전용시설 설치(별도), 계사문 2중으로 보완 소독기 일제 점검, 계사별 샤워실,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의 밀폐화와 개선(스팀 훈증 소독시설, 대인 소독기 등), 대인 소독기 무의미하고 자실 구비, 소독 횡수 증대, 소독시설 등 시설개선(정부방침 적극 수용), 인개분무시설 개선(입자 작게), 울타리 자체 인개분무 설치, 육계는 샤워설치 불필요, 정문소독기 개보수(터널식), 축사외부 소독전용 장비 구비 등
기타	3	경영자금지원, 사육두수감축 : 사육두수 감축했으나 3만수까지 개선 예정, 경영자금 지원, 시설 현대화 및 경영자금지원 등
부정확/모름	5	농장 판매 예정이라 생각 안 해봤음, 시설개선 완료, 방역조치 철저이행 중, 전실 필요 없음, 큰 도로 인접, 차단방역 지난, 현재 잘 하는 중, 기 설치 등
무응답	4	-
소계	67	-

● 3진 아웃제(5년 내 3번 발생) 도입에 대한 의견(〈표 4-23〉 참고)

- 3진 아웃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반대 응답이 56호로서 압도적으로 높음.
- 이유로서 생계수단, 농가책임 전가부당, 원인분석 중요, 폐업보상금 지원 등을 꼽고 있음.

〈표 4-23〉 3진 아웃제 도입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찬성	10	-	
반대	56	-	
무응답	1	-	
소계	67	-	
사유	조건부 찬성	2	조건부 찬성(2명) : 단 이전 수용 지원시(100%) 긍정적, 도입 필요하나 이웃 농가에 대한 배려 필요 등
	반대	3	반대(3명) : 부정적(축산 농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고의성이 없음으로 반대, 시기상조 등
	생계수단	6	3진 아웃 이후 생계 막막, 5년에 3번 발생하면 문 닫을 수밖에 없음, 개인 피해 막대, 농가 생계수단 차단은 안 된다고 생각, 농가 생계유지에 필요, 단 농장시설 이전 수용비의 정부지원이 있을 시 긍정적 검토, 축산농가 생업 등
	농가책임 전가부당	5	농가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생각, 농가에게만 전적으로 책임 전가하면 안 됨, 지연신고 벌미 제공, 철새 등 불가항력적인 점이 있는데 3진 아웃제는 농가에만 책임 전가 하는 것 등
	원인분석 중요	4	농가 설득 및 발생원인 분석 필요, 농가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대책 필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면 동의, 인력으로 방어 어려움 등
	폐업보상금 지원	3	폐업보상금 지원, 폐업보상금 지원 후 도입, 아웃시키려면 보상금이 먼저 정해져야 함 등
	무응답	44	-
소계	67	-	

●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대한 의견(〈표 4-24〉 참고)

-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대한 의견은 반대 응답이 45호로서 높은 편
- 이유로서 현실적용 불가능, 경제측면 우선 등을 꼽고 있음.

〈표 4-24〉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찬성	21	-	
반대	45	-	
무응답	1	-	
소계	67	-	
이유	찬성	5	긍정적, 동물과 인간 공존, 사육두수 줄이는 건 좋은 것, 앞으로 추진 계획
	반대	7	동물복지와 AI 간에는 상관없다고 생각, 사람 우선, 시기상조(인증제가 도입되면 사육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 우려), 외국 견학을 했지만(네덜란드) 이해 불가, 유예기간 필요, 자율적 운영은 찬성. 정부 차원은 반대 등
	경제측면우선	9	공감은 하나 농가수입이 우선,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 보상조치 필요, 복지화하면 계란가격 대폭 상승, 불필요, 현실성(투자 대비 성과) 떨어짐, 생산비 보전이 되면 도입할 생각 있음, 투자비에 비해 생산성 저하, 투자비와 생산면적 필요. 생산원가 상승,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어려움 등
	현실적용 불가능	12	동물복지는 필요하지만 산업동물 복지는 조금 더 생각 해 볼 필요, 메추리의 경우는 적용이 어려움, 세부 적용규정이 너무 엄격, 어렵고 필요성 느끼지 않음, 우리나라는 여건상(좋은국토면적) 안 맞음, 인증 시 관공서 절차 통과가 어려움, 취지는 좋으나 영세한 농가에서는 시설 투자부분 열악하니 국가지원 필요,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이 떨어짐, 산란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상업적 측면에서 불가능,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설 가능한 토지 등 문제로 어려움 등
	부정확/모름	2	중요리는 복지농장이나 다름 없음, 동물복지와 AI 발생은 별개 등

무응답	32	-
소계	67	-

● 익산 동물복지농장 방역성공 사례에 대한 의견(〈표 4-25〉 참고)

- 익산의 동물복지농장 방역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44.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30호)
- 다만, 면역력 증진(10호), 사육환경개선(10호), 우연한 행운(6호), 방역관리(5호) 등에서 성공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표 4-25〉 익산 동물복지농장 방역성공 사례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동의	0	-
비동의	30	시랑 상관없다고 생각, 관리 잘함(동물복지와는 상관 없는 것 같다), 근거없음, 동물 복지가 방역성공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 동물복지 농장이라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성공했다고 보지 않음, 의미 없음, 정확하지 않음, 지역적 차이이지 별다른 점 없음, 효과는 있겠으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성공이라고 볼 수 없음 등
면역력 증진	10	닭을 건강하게 키움, 동물 면역 체계 상승, 면역력 높음, 보다 건강한 닭을 생산한다고 생각, 복지를 통한 면역력 상승, 자유로운 활동으로 개체 건강, 자체 면역력 강화, 평사 및 비밀 집 사육으로 면역능력 향상 등
방역관리	5	가축 면역력 및 해당농가의 차단방역(소독), 방역관리 철저, 지속관리 필요, 차단방역 등
사육환경개선	10	사료 품질, 면역력 제품 공급, 병아리 품질, 환경, 사육규모가 작아서 사람/차량 이동이 적어서 비 발생, 사육형태 및 방역관리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 등 수반될 필요, 자연환기, 적정두수 및 시설개선 등으로 사육환경 개선, 조기 출하, 좋은 환경 조성, 환경(특히 밀사) 관리, 환경적 보안 등
우연한 행운	6	운이 좋았음(동물 복지가 방역 성공의 원인은 아님), 해당농장의 운 등
부정확/모름	2	익산 사례는 못 들어 봤음 등
무응답	4	-
소계	67	-

● 예방적 살처분 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표 4-26〉 참고)

- 예방적 살처분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초기강력대응(방역)활동(19호), 살처분 반경 재설정과 조기출하(16호), 백신공급과 개발(10호), 탄력적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8호) 순으로 응답

〈표 4-26〉 예방적 살처분 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동의	4	예방적 살처분 타당, 예방적 살처분 필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필요 등
해당없음	9	-
살처분 반경 재설정과 조기출하	16	500m 이내 살처분 필요, 500m만 설치, 500m이내 농가도 닭 상태를 봐서 예방적 살처분 결정, 농장 검사 후 도태처리, 조기 검사실시로 출하 유도 및 조기 도태/도계 출하, 미 감염 시 도축 출하, 발생농가에서 원거리는 살처분 지양하고 소독과 차단방역 철저, 처음 발생 시 반경 내 살처분 필요, 상황에 맞는 살처분 반경 적용 등
초기강력대응(방역)	19	최초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살처분 적용 필요, N6형은 3km이내 및 N8형은 발생 농가 위주로 살처분 필요, 검사결과로 농장별 선택적/선별적 살처분, 농가 성실신고를 통한 빠른 매몰 처리를 통해서 발생농가 원천 봉쇄, 농장주의 신속한 신고, 관리농가 매일 검사로 발생 최소화, 대안은 없으나 대상 선정 후엔 되도록 빠른 시간 내 추진, 매몰 및 소각 병행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밀폐 후 통제, 발생 초기 500m든 3km든 과감하게 살처분 실시, 다발 이후의 살처분은 의미 없음, 발생농장과 발생된 가금만 살처분,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완료가 전파 방지에 더욱 중요, 살처분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매몰보다 랜더링으로 빠른 살처분 필요,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며 사육 실시하며 방역 조치, 진천방역(호발시기 휴업조치), 통제철저, 소독철저 등
탄력적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	8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보다는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필요, 방역대 농가에 대한 지속적 검사를 통한 예방과 예찰, 버티다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시군에서 지속적인 관리, 유보 후 확인절차 필요, 전파가능이 적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인 차단방역 및 관공서의 검사결과에 따라 추진, 주변 농장 관찰 후 증상이 나오면 실시 등
백신공급과 개발	10	ring vaccination,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정책 실시/도입 등
무응답	1	-
소계	67	-

● 거점소독시설 효과에 대한 의견, (위험지역) 선택적 AI 예방백신 접종에 대한 의견(〈표 4-27〉 참고)

- 거점소독시설 효과는 '있음' (21호)와 '없음' (26호)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
- 위험지역의 선택적 AI 예방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0호로서 높게 나타남.

〈표 4-27〉 거점소독시설 효과 및 선택적 AI 예방백신 접종에 대한 의견

거점소독시설 효과에 대한 의견		위험지역에 선택적인 AI 예방백신 접종에 대한 의견, 주요 내용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효과있음	21	찬성	50	찬성의견 (10)	바이러스 상재화, 백신 실시할 경우 가금 사육농가 전체 실시(ring 백신 가능), 변형에 따른 사람 전파 우려 없으면 도입 찬성, 빨리 추진 필요, 유효 전제로 백신 실시 찬성, 전국 단위 백신접종 필요 등
효과없음	26	반대	16	반대의견 (4)	주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려움 있을 것, 예방백신 접종 반대, 효과 없음 등
오염가능성	13	무응답	1	조건부 찬성의견 (5)	선택적 백신 접종(대신 백신비 지원), 안정적 사육기간을 위해서 종계 및 종오리 선택적 백신 등
부정확/모름	5	소계	67	무응답(48)	-
무응답	2				
소계	67				

● 강화된 재입식 과정에 대한 의견(〈표 4-28〉 참고)

- 강화된 재입식 과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20호), 경제적 피해 우려(13호), 현실과 괴리(5호) 순으로 응답

〈표 4-28〉 강화된 재입식 과정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찬성	7	강화 필요, 규정이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살처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므로), 바람직, 방역의식 고취로 좋게 생각, 잘 하고 있음, 재입식 농장에 대한 주기적 검사 필요 등
반대	3	개인 재산 사유로 인한 거부, 개판, PCR 검사로 안정해야 함, 입식절차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강화가 만사는 아님 등
경제적 피해 우려	13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입식을 하여야 하나 재입식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오래 걸려 경제적으로 피해가 큼, 너무 장기간 미입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 높음, 두 번 죽이는 조치(손실 막대) 바이러스만 검출 안 되면 됨, 요건 및 절차 강화로 인한 재입식 지연으로 농가 손해가 큼, 발생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입식을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 없는 기간 동안 농가 지원 필요, 소요기간 길어 입식 지체, 입식지연에 따른 농가손해 발생하고 불합리, 필요하나 농장주 경제적 어려움, 형식적 과정은 지양하고 AI 비유행시기에 생계 등을 고려하여 빨리 입식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등
과도한 규제	20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많은 시간 소요, 과한 규제이므로 완화 필요, 기간별(시기별) 강화 완화 조절 요망, 너무 까다롭고/복잡하고/지나치고/오래 걸리는 등 불편한 요소 다수 상존, 너무 지지나친 청결 원함(먼지 하나까지 트집, 케이지에 낀 깃털까지 제재), 농가 규제만 한다고 생각, 각 농가 현실에 맞는 대응 필요, 농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 발생농가 재 압박, 절차만 까다롭고 농가에 손실이 많음 등
현실과 괴리	5	농장상황에 맞는 재입식 강구, 탁상공론 현실 적용 부족, 현실적으로 어려움 등
부정확/모름	3	2013년 예산 경험, 살수가 없음, 아직 재입식 신청을 하지 않아 잘 모르겠음, 청소 상태 완화 필요, 깃털 존재시 재검사 필요 등
무응답	16	-
소계	67	-

2) 책임의식 수준 실태

● AI 발생농가 패널티 부과에 대한 의견(<표 4-29> 참고)

- AI 발생농가 패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당하다는 응답 우세(54호)
- 이유로서 모든 것을 농가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응답(21호), 오히려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12호), 책임소재 및 원인 불분명(11호), 보상금 삭감이 지연신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응답(9호), 자연재해 원인(7호) 순으로 나타남.

<표 4-29> AI 발생농가 패널티 부과에 대한 의견

패널티에 대한 생각		부당한 이유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당연함	6	조건부찬성	1	패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농가와와의 공감대 형성이후 실시
부당함	54	농가책임전가부당	21	국가도 못 막는 걸 농가 개인이 막으라고 하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건 부당, 농가 잘못 때문 발생한 것 아니기에 잘못 아님, 잘못 규명한 후에 패널티 부과, 농가 개인의 잘못 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 농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 농가는 최선을 다 했으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 농가를 고사시키는 것, 농장주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 말도 안되는 생각,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전적으로 농가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발생은 농가책임 아님, 방역기관에서 지시한 방역조치를 했음에도 발생한 부분에 대한 패널티 부당, 방역을 철저히 하고도 발생하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 많음, 불가항력적인 AI 발생을 농가에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 이미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패널티 부과는 부당, 정부지원 배제 등 농가만의 잘못

패널티에 대한 생각		부당한 이유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아님, 최선다 했기 때문에 패널티 부당 등
기타	4	경제적 피해 우려	3	3진 아웃 생계 문제, 농가 경제 손실이 매우 막심 등
부정확/모름	2	지원확대 필요	12	최초검사 시 음성이었으나 예방적 살처분 대상농가 지정 후 살처분 지연으로 양성 판정 후 보상금 삭감은 부정적, 방역시설(소독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발생농가일수록 더 지원 해줘야 하는 것이 맞음, 정부 지원 배제 등 법적 이행사항 위반 시에만 적용, AI발생에 의한 피해도 크데 패널티 부과까지 하는 것은 부당, 정부책임이 있고 일정부분 정부가 책임 져야 함, 패널티 부과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등
무응답	1	보상금 삭감, 지연신고	9	방역을 잘해도 AI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20% 보상금 삭감은 문제, 밀집지역에서 발생 시 이전에 발생한 농가들은 패널티 때문에 신고를 꺼림, 살처분 매물 비용 일부 부담, 살처분 보상금 삭감에는 찬성하나 AI 발생으로 무조건 20% 삭감하는 것은 너무 과함, 이미 살처분보상금 20% 삭감 등 패널티 당하고 있음, 지원을 통해 농가가 재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패널티 때문에 지연신고 할 수 있음, 패널티 자체가 부당하다기 보단 지금도 보상금이 적어서 다음 입식조차 어려운 상황 등
		자연재해 원인	7	야생철새 및 공기전파 등 자연재해 원인인데 패널티 부당, virus에 의한 발생으로 농가 예방이 때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 농가 책임이 아닌 철새가 원인이므로 천재지변에 가까움 등
		책임소재, 원인불분명	11	발생원인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이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패널티 부과 부당, 발생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워 납득할 수 없음, 어느 누구도 발생시키고 싶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 원인 규명 안 된 상태는 무의미, 정부지원 배제 등 발생원인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철새 등에 기인한 자연재해 등
		무응답	3	-
소계	67	소계	67	-

● 내 농장에 AI가 발생하면 차단을 위한 조치 사항(〈표 4-30〉 참고)

- 내 농장에 AI가 발생하면 차단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서 소독 및 방역 강화(32호), 출입 및 접촉 통제(11호), 방역과 통제라는 혼합 활동(11호) 순으로 응답

〈표 4-30〉 내 농장의 AI 차단을 위한 조치 사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소독 및 방역 강화	32	1톤짜리 소독차량 자체 구입하여 소독 강화, 농장 방역에 최선을 다함, 살처분이 느려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생각,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정부가 조사해서 알려주면 좋겠음, 소독강화 및 모임불참석, 소독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 소독시설 설치 및 차량소독 철저, 소독횟수 증가 및 차단방역 철저(석회 도포 등), 축사 내 외부 주변 소독, 죄인과 같은 생각이 들었고 밤잠을 설쳤음, 아침 저녁으로 축사 주변 소독 등
출입 및 접촉 통제	11	격리(3-6주 외출 외박 금지), 오염 가능성 우려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외부인 및 차량 출입금지, 이동 통제 및 살처분, 철저한 출입 통제 최대한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 철저, 축사외부 출입금지 등
혼합(방역, 통제)	11	농장 소독조치 및 출입제한, 이동 통제 및 소독 철저, 소독 및 차량 출입통제 강화, 소독강화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철저한 방역과 농장소독을 단계적으로 출입 관리, 철저한 소독 및 농장 내 통행 차단(전실 설치) 등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기타	2	입식지연, 피해주는 것에 대해 미안하지만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필요 등
부정확/모름	9	-
무응답	2	-
소계	67	-

● 시·군 가금협회 차원에서 AI 차단방역 조치 논의 여부와 논의 내용(〈표 4-31〉 참고)

- 시군 가금협회 차원에서 AI 차단방역 조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있음' 응답이 38호, '없음' 응답이 26호
-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소독 및 방역 강화(12호), 교육활동(7호), 정보공유(7호), 출입 및 접촉 통제(3호) 순으로 응답

〈표 4-31〉 가금협회 차원의 AI 차단방역 조치 논의 여부와 논의 내용

논의 여부		논의 내용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논의한 적 있음	38	소독 및 방역 강화	12	방역 사항 및 수급 관령 사항, 소독 차단방역 출입통제, 도로소독, 소독 타 농장 방문금지 및 모임자제 등, 소독시설 설치, 동네별 협동 소독, 양계협회 향상 논의, 소독약 효과, 차단방역 등
논의한 적 없음	26	출입 및 접촉 통제	3	농장 간 이동자제, 해외모임 자제, 문자로 만남 금지, 양계협회 계육협회 검창원 소독 외부출입, 우체부 차량 논의 등
부정확	1	활동미흡한 편	3	공주시 양계 협회 회원이지만 활동은 하지 않음, 5월중 1회 했으나 AI 발생시 만날 수 없음, 논의는 많으나 대체적으로 부재 등
무응답	2	교육활동	7	교육 참석, 대처 방안 논의 및 방역교육 실시 AI 차단방역/질병 방역 및 법령 개정사항 등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방역교육 실시, 토론 및 강의 등
		정보공유	7	공동대응으로 손실 최소화, 공문 및 전화예찰로 조기신고, 본사(조인계열) 지시, 소독철저 문자 등 정보 공유, 양계 협회에서 방역 시세 논의, 문자, 팩스 등 이용 등
		백신도입	3	산란계 AI백신 도입, 백신접종의 필요성 등
		부정확/모름	6	-
		무응답	26	-
소계	67	소계	67	-

● AI 발생으로 정부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표 4-32〉 참고)

- AI 발생으로 인한 정부 비용부담 의견으로 당연하다는 응답이 49호로 우세, 조건부 찬성 응답은 6호, 일부분담 및 공동책임 응답은 7호로 나타남.
- 정부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로서 AI는 자연재난이고 불가항력인 현상, 아직 책임소재 및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살처분 및 매몰 등은 국가가 명령한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의견 등을 제시함.

〈표 4-32〉 정부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정부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정부 비용부담 찬성 이유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당연함	49	당연	43	1차산업이므로 정부에서 보호, 국력에 맞게 국가가 농가에 지급(농촌 지원), AI 발생은 농가만의 책임이 아님(virus 침입 불명, 원인불명 등), 발생원인을 이해못함. 발생원인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AI는 농가뿐 아니라 인체감염 위험도 있어서 국가 차원의 조치 필요, AI는 농가에서 막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고 자연재난, 불가학력적인 점, 법정전염병으로 다른 곳으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역조치로 살처분 등을 추진하였기에 국가지출은 당연, 재난 수준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정부차원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 농가별 세금부담하는 점을 감안해 강제 살처분에 따른 보상 필요, 강제성 집행이므로 전적으로 정부부담 당연, 계열사 농가 등 재정적 열악, 국가적인 재앙이고 국가의 방역 정책에 의한 도태 등 제한을 받기 때문, 국제적인 질병이니 정부가 책임질 필요, 농가 입장에서 지킬 것은 다 지켰기 때문에 정부 부담, 농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법정전염병에 대한 관리 및 조치 역시 국가에서 시행함이 맞다고 생각, 농가는 발생만으로도 손해가 큼, 농가만의 잘못이 아님, 농가의 재정여건 열악하여 부담이 큼, 매몰비용을 농가에 부담은 반대이며 전적으로 정부부담으로 해야 함, 매몰비용을 농가부담은 반대, 전적으로 정부 부담, 살처분 등에 따른 규제보상 차원, 밀집지역 대규모 농장을 추가 허용해 주는 등 정부의 책임과 과실이 큼, 초기대응 및 정부정책 실패 등 정부책임이므로 전부 지출, 축산업을 배제하더라도 방역지원 사업은 배제하지 말아야 함, 현재 살처분 정책에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게 당연	
부담함	10	조건부 당연	6	다른 질병을 백신으로 방어, 법적 이행사항 위반 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보상보다는 반복 발생하는 서해안 라인 등 사전 방역조치 강화 필요, 정확한 원인 규명 되면 농가부담 당연(보상금 삭감), 패널티 부과로 비용 중 최소한 금액은 부담, 살처분 비용이 적정하게 납득될 필요	
기타	7	일부분담 및 공동책임	7	사육형태가 대부분 위탁사육이므로 계열업체가 일부 부담을 해야 함, 살처분 비용 등 일부 농가부담 필요, 정부와 농가 공동책임, 축산 농가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피해금액 중 자부담 일부는 장기 저리융자(15~20년) 제도 필요	
무응답	1	의견없음	3	-	
		부정확/모름	1	-	
		무응답	7	-	
소계	67	소계	67	-	

● AI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농가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표 4-33〉 참고)

- AI 발생으로 인한 농가 비용부담 의견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8호로서 우세, 찬성한다는 응답은 17호로 나타남.
- 농가 비용부담 반대 이유로서 경제적 피해 우려(12호), 일부분담 및 공동책임(8호), 농가책임전가 부담(6호), 정부대응 미흡(6호), 자연재해 원인(5호), 책임 소재 및 원인 불분명(4호) 순으로 응답

- 농가 비용부담 찬성 이유로서 '매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응답은 4명, '인건비(방역초소 등)를 부담해야 한다' 응답, '매출액의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응답은 각 1명 순으로 응답

〈표 4-33〉 농가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농가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농가 비용부담 반대 이유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찬성	17	책임소재 및 원인 불분명	4	AI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 농가에서는 발생원인을 이해못함, 정확한 원인규명 우선, 농가 잘못이 인정되면 농가도 무엇이든 부담 가능 등	
반대	48	농가책임전가 부당	6	농가 잘못이라던가 농가 책임을 못 느끼고 아니라고 생각, 농가는 본인의 재산이므로 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사유재산 매몰을 농가 부담으로 하는 것 부당한 처사 등	
무응답	2	경제적 피해 우려	12	경제적 부담과 농가의 피해가 너무 큼, 농가 대부분은 빚져서 경영 중, 법적 이행사항 위반 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보상금 산정 시 노계는 평가 잘하 등 이미 피해보는 중, 살처분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 농가 손실 많음, 질병 발생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농가인데 보상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것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더욱 부당, 현재도 보상금 삭감 입식시험 등 손해보는 중	
		일부분담 및 공동책임	8	매출액의 1%기금 마련, 계열사의 부담 필요, 대규모 농가일 경우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대체로 양계농가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여유있는 농장은 부담, 위탁사육형태로써 계열업체의 충분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 질 때 방역 가능,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담, 농가 잘못이 인정되면 농가도 매몰비 정도 부담 의향 등	
		자연재해 원인	5	AI는 자연재난이자 자연재해, 농가가 막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 철새에 의해 발생하는데 농가 부담은 더욱 부당, 철저히 방역조치를 시행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자연재해 방역차원 살처분 필요 등	
		정부대응 미흡	6	1차 산업이므로 정부에서 당연히 보호해줘야 함, 아니면 다 수입해서 먹으면 됨, 발생 후 신고지연 사태초래, 살처분 정책으로만 가고 백신 정책 묵살, 일본처럼 정부에서 신속한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농가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정부가 못 막으니 정부대응 부족/미흡 등	
		무응답	26	-	
소계	67	소계	67	-	

- AI 발생 시 주변의 축산·비축산농가, 일반인 및 정부의 피해가 큰데 가금농가의 책임소재 (〈표 4-34〉 참고)

- AI 발생 시 가금농가의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은 규모축소(18호), 사육제한(10호) 등으로 응답
- 가금농가의 책임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사육제한 및 축소, 소독 및 방역강화, 책임의식 강화, 규정 개선 등

〈표 4-34〉 가금농가의 책임소재 의견

가금농가 책임		책임있는 행동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사육제한	10	사육제한 및 축소	13	AI 발생 위험시기 사육제한, 법적 한도 내에서 규모 축소, 밀집지역 상시 발생하므로 거리제한, 법적 한도 내에서 규모 축소, 신규 농가 거리 제한, 일정기간 사육	

가금농가 책임		책임있는 행동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제한, 재입식시까지 사육제한하는 것 자체가 책임, 지역이전 (정부 지원 필요), 농가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규모 축소 등
규모축소	18	소독 및 방역 강화	4	농기방역 철저, 조기신고, 철저한 차단방역, 축사주변 소독철저 등
기타	32	보상금 등 생계지원	2	발생원인에 따라 차등책임(보상금), 생계비지원만 된다면 매년 10~3월까지 휴지기간 등
부정확/모름	2	책임없음	11	시는 재난으로 농가 책임 아님, 농가 책임 없음, 축산농가에 지나친 책임 부담, 현 상태 유지 등
무응답	5	책임의식 강화	3	죄송한 마음, 책임의식 갖고 철저 방역 등
		원인불분명	2	천재에 준하는 상황, 발생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등
		규정개선	3	ND, 추백리 등 가금 전 질병 균등하게 적용 필요(관련 규정 마련), 동물복지 사양 관리, 정부와 협회 협의 후 결정 등
		부정확/모름	2	-
		무응답	27	-
소계	67	소계	67	-

● 소독활동 외면한 경험 여부와 이유(〈표 4-35〉 참고)

- 소독실시 및 소독시설 설치가 귀찮거나 비용 지출로 인해서 외면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없음' 응답이 54호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 외면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 계절적 이유 등으로 응답

〈표 4-35〉 소독활동 외면한 경험과 이유

외면한 경험 여부		외면 이유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있음	7	경제적 이유	4	경제적인 이유, 정부는 지시만 하는데 농가에서는 장비 설치 및 보수에 비용 소요, 비용 부담으로 소독시설 현대화 작업 못함, 안개분무기(축사 외부) 설치하고 싶는데 자금이 없어서 미설치 등
없음	54	계절적 이유	1	소독 등한시, 여름철 소독 미실시 등
부정확/모름	3	부정확/모름	2	-
무응답	3	무응답	60	-
소계	67	소계	67	-

● 기업형 축산농가의 방역비용 미부담이 부당함(일반인 견해)에 대한 의견(〈표 4-36〉 참고)

- 일반인이 보는 기업형 축산농가의 방역비용 미부담이 부당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25호, 반대한다는 응답이 23호로 팽팽하게 대립, 농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조건부동의가 3호, 일부분담 및 공동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12호로 나타남.
- 동의하는 구체적인 의견은 기업형 축산농가도 일반농가와 똑같다고 생각, 기업형 축산농가는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기업수준의 계열업체가 방역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반대하는 구체적인 의견은 규모를 늘려야 수익성이 증대하므로 기업농은 시대적 상황, 기업형 축산농가의 방역비용 부담은 결국 소규모 농가에게도 부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표 4-36〉 기업형 축산농가의 방역비용 미부담에 대한이 부당함(일반인 견해)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동의	25	일반농가와 똑같다고 생각, 기업형 축산 농가는 자체 부담 필요, 기업형 계열사 부담 필요, 정보부조없이 자체적으로 해야 함, 0%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어느 정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인정,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 기업수준의 경우 기업에서 책임지는 게 맞음, 기업수준의 계열업체 방역비용 부담 찬성, 동등하게 해야 함, 기업수준의 농가 피해가 어차피 소규모 농가로 전가, 기업수준의 축산농가는 수입이 많으므로 개인 축산농가와와는 다르다고 생각, 대기업군 축산업 진출을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생각, 지속적으로 사육비 증가 추세로 정부가 업자편만 들어 농가로 피해 전가 등
반대	23	규모가 클수록 대개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 규모를 늘려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기업농은 시대적 상황, 기업수준의 농가도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 필요, 기업수준의 축산농가 등 부과되는 방역비용은 결국 소규모 농가에도 부과될 것임에 반대 등
조건부동의(농가구분 필요)	3	기업농가와 영세농가 차별 필요, 대부분 생계형 농장 운영으로 일정규모(산란계 동의, 만수 이상) 지원배제 등 법제화, 부분동의 등
일부분담 및 공동책임	12	개별농가는 소독약구입 등 이미 방역비용 부담 중, 기업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함, 기업수준의 농가는 일부 부담하거나 차등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보상료 삭감/매물 자체 부담규모/ 산란계 동 ,만수 이상 자체 운영상태 파악 후 실시 필요, 본인(농장)이 대부분 소독약 및 구서제 등 소독약품 정도는 구입하여 사용하므로 일정부분 부담, 소독약품 등은 개인 부담 자체농장 소독 및 설비 설치 등 이미 농가 비용 부담, 방역세를 도입하여 일부분 부담 필요 등
부정확/모름	1	-
무응답	3	-
소계	67	-

3) 발생원인 자가진단

- (전체) AI 발생의 책임 주체(〈표 4-37〉 참고)

- AI 발생의 책임 주체는 국가(25호), 농가(10호), 지자체(8호), 기타(24호) 순으로 응답
- 기타 의견 내용은 공기전파 및 철새 등 자연적 요인(13호), 책임소재 불분명 등 원인 불분명(15호), 사람에 의한 전파(1호) 등으로 응답

〈표 4-37〉 AI 발생의 책임 주체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농가	10	-
국가	25	-
지방자치단체	8	-
기타	24	공기전파 및 철새 등 자연적 요인(13명), 책임소재 불분명 등 원인 불분명(15명), 사람에 의한 전파(1명) 등
소계	67	-

- (전체) 철새, 차량, 사람 등 AI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표 4-38〉 참고)

- AI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으로 야생동물 전파(19호), 차량과 사람 전파(19호), 복합요인(15호), 공

기 전파(7호) 등 순으로 응답

〈표 4-38〉 AI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복합요인	15	1차 철새, 2차 사람 및 출입차량, 기타 공기전파, 설치류 모두 해당, 복합 작용, 철새 등 기계적 전파로 복합적 요인 등
차량과 사람 전파	19	사람(검사인력), 생축의 이동 주변 축산농가, 도계장, 축산차량(닭차, 도계장 인접) 및 사람 철새는 아니라고 생각, 차량 통제의 어려움 등
야생동물 전파	23	야생조류, 철새, 철새분변 등
공기 전파	7	바람을 타고 공기 전염, 인접농가에서 살처분 조치 중 발생농가에서의 깃털 등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생각 등
무응답	3	-
소계	67	-

● (나의 농장) AI가 발생한 이유(〈표 4-39〉 참고)

- 나의 농장에 AI가 발생한 이유는 공기 전파(19호), 야생동물 전파(16호), 방역 미흡(9호), 차량과 사람 전파(8호) 순으로 응답

〈표 4-39〉 (나의 농장) AI가 발생한 이유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공기 전파	19	계분장 바이러스, 도로인접, 양성발생 인근 농가와 인접 거리 위치, 살처분 지연 등
야생동물 전파	16	야생 조류, 쥐, 철새, 텃새, 노계 등
차량과 사람 전파	8	매물차량, 사료 및 왕겨운송차량, 식란 운반차량, 계분반출 제한 등
방역 미흡	9	거점소독시설 오염, 관리소홀, 지자체 도로방역관리 대응 소홀, 도로통제 및 주변 통제초소 미설치, 차단방역 실패 등
원인불분명	2	-
개체감염 전파	5	감염된 개체 구입, 보충시킨 수탉, 중추, 초생추 등
부정확/모름	1	-
무응답	7	-
소계	67	-

● (나의 농장) AI 발생 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표 4-40〉 참고)

- 나의 농장에 AI 발생 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27호)하는 의견이 40.2%, 소독 및 방역 미흡(22호), 사육관리 소홀(7호), 야생동물 차단(4호) 순으로 응답

〈표 4-40〉 (나의 농장) AI 발생 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소독 및 방역 미흡	22	공동 소독을 위한 농장 간 접촉, 바닥이 습해서 소독관리 소홀, 동절기 소독 미흡, 농장 출퇴근, 출퇴근 차량이 따로 있지만 하지 않았어야 함 농장별 별도의 전담 사료 차량 운영하지 않음(천안1개, 세종3개 농장 보유), 발생 농가 주변 통행 차량 완벽 차단 미흡, 발생 농장 출입 차량이 이용한 도로 이용, 분동시기 부적절(호흡기 등 분동 스트레스), 외출 후 적절한 방역조치 미 실시, 운반차량 관리, 차단 미흡, 차량소독시설 미흡, 전실 및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차량통제 미흡, 윈치커튼 열어 놓은 것(야생조류 유입 가능성), 장화 갈아신기, 집 인근 도로 통제 미비(우편물, 축산차량 등), 철저한 차단 방역, 최선을 다해 소독, 축사 외부 공기 위입구 부위에 소독을 하고 싶었는데 안했던 것 후회 등
사육관리 소홀	7	사육관리 소홀 가능성, 동절기 추위에 따른 사육관리 소홀, 빠른 신고를 한 점, 3일 후 인근 농장에서 발생, 사육규모를 더 최소화 했어야 했는데 따른 후회, 살처분 조기 건의했으나 불발, 축사 환기창 개방 미흡 등
야생동물 차단	4	발생동에 대한 야생동물 차단, 철새퇴치, 야생동물(설치류) 차단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야생조류 폐사 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함 등
없음	27	굳이 찾자면 아이들 통학을 위해 외출한 것, 불가항력, 방역기관의 조치사항 모두 이행, 할 수 있는 방역조치 다 했음, 최선을 다했다 등
무응답	7	-
소계	67	-

● (나의 농장) AI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쉬운 조치 사항(〈표 4-41〉 참고)

- 나의 농장에서 AI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쉬운 조치 사항으로서 소독 및 방역 철저(19호), 접촉요인 제거(13호), 사육환경 관리(7호), 살처분 및 조기출하(6호) 등의 순으로 응답

〈표 4-41〉 (나의 농장) AI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쉬운 조치 사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소독 및 방역 철저	19	거점 소독 시설 관리 철저(왕겨, 소독 포함), 대인 소독실 구비, 도로소독 발생농장 살처분을 신속하게 하고 용역 사람 소독 등 철저, 발생지역 통제초소 설치, 소독 철저 및 강화, 신계교체팀 차단방역, 야생동물(설치류) 방역, 파레트 스티 소독, 외부소독, 주변소독, 장화 갈아신기, 좋은 소독약을 자체 구입, 차단 방역, 초동방역, AI 백신, 축사 밀폐의 차단방역 등
사육환경 관리	7	계열업체에서 운영비의 원활한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왕겨의 주기적 교체 등), 분동시 축사 보온 강화, 분산사육, 중추입식 신중하지 못함 출하를 늦추거나 빨리 출하, 환풍기에 에어필터 설치(외부 공기의 정화-깃털 등), 웬 시설 및 온풍기 설치(환기 및 온도 조절) 등
접촉요인 제거	13	계란 운반차량 내부 및 외부 소독 철저 또는 농장내 진입 차단 계란반출이 되었으면 발생 안 했을 것 같음 농장 출퇴근, 도로 오염원 유입 차단, 발생농가 인접 도로 통제, 보유 농장별 사료, 계란차량 별도 운행, 식란 보관창고가 밖에 있던지 식란 운반차량에 대한 통제, 인근 농장 간 접촉 방지, 입식된 가축의 사전검사, 주변에 양계농가의 밀집으로 위험성이 높아짐, 길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질병발생 요인 부담 증가, 차량통제, 철새 및 야생동물 차단 등
면역력 증진	2	동절기 보온처리시설 미흡(면역력 저하 원인제공), 충분한 영양제 공급
살처분 및 조기출하	6	늙은 닭 사육하지 말고 출하 했어야 하는 후회(지난번 입추(중추)도 건강하지 못 했음), 이전 발생농장의 신속한 살처분 및 살처분 인부관리 철저, 종오리 등 조기 출하, 주변농가 발생 초기 조기 도태, 주위 농가 신속한 살처분 등
기타(초동대응)	2	발생농장 조속한 신고(보상금 차등으로 인한 늦게 신고 원인), 소독은 의미 없고 백신 필요 등
부정확/모름	3	닭이 사육되는 동안에는 시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 정확한 원인을 모르게 때문에 답답함, 제반 모든 것에 대한 부족 등
무응답	15	-
소계	67	-

● (남의 농장) AI 발생을 막은 조치 사항(〈표 4-42〉 참고)

- 남의 농장에서 AI 발생을 막은 조치 사항으로서 소독 및 방역 철저(18호), 불가항력적이라 모름(18호), 우연한 행운(14호), 시설 및 장비 현대화(4호), 지리적 여건(4호) 등 순으로 응답

〈표 4-42〉 (남의 농장) AI 발생을 막은 조치 사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시설 및 장비 현대화	4	각종 시설, 장비 현대화(온도, 습도, 환기 관리 등 사양관리 강화), 전반적인 농장 환경관리 등
우연한 행운	14	단지 재수/운이 좋아서 비발생, 천운, 행운이라고 생각 등
소독 및 방역 철저	18	파레트 스팀 소독, 철저한 차량통제, 접촉차단, 철저한 차단방역, 축사 밀폐의 차단방역 등
복합적 요인	5	닭이 건강+환경양호+소독 활동, 면역력 관리+오염원의 100%차단 어려움, 차단방역+사육환경 개선, 차단방역+지리적 여건, 철새도래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밀집사육지역이 아닌 환경적 여건과 소독철저 등
모름(불가항력)	18	육계 계열화는 사양관리 등이 잘 안되기에 걸릴 가능성 높음 등
지리적 여건	4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 외부 차단된 고립적인 환경, 지리적 여건 양호, 지역적 차이 등
무응답	4	-
소계	67	-

● (남의 농장) AI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쉬운 조치 사항(〈표 4-43〉 참고)

- 남의 농장에서 AI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쉬운 조치 사항으로서 불가항력적이라 모름(23호), 소독 및 방역 철저(19호), 접촉요인 제거(8호), 복합적 요인(3호) 등의 순으로 응답

〈표 4-43〉 (남의 농장) AI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쉬운 조치 사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접촉요인 제거	8	발생농장 인접 도로 통제, 접촉차단 및 철저한 출입통제, 출입자 차량관리 및 통제, 철새퇴치 및 출입자 소독 철저 등
우연한 행운	2	-
소독 및 방역 철저	19	발생농장 살처분 시 폐사체 운반조치 강화, 살처분 작업자의 개인 방역 조치사항 이행 철저, 방역조치 강화, 사육개선, 빠른 살처분, 소독이 안개분무, 발생 전 통제 초소, 거점소독시설 설치로 예방 필요, 차단방역과 소독, 차량 소독, 초기 발생농장 주변 통제초소 설치, 초동방역 철저, 축사 밀폐의 차단방역, 파레트 스팀소독, 희석배출 강화 등 소독 철저
복합적 요인	3	계사 내 보온을 높여서 육계와 유사한 환경 만들기, 면역력 관리/온도/습도/환기 조절과 관리 등
모름(불가항력)	23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 발생농장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 옆 농장에서 AI 발생하면 막을 방법이 없음 등
부정확	1	무창계사가 더 불리함 등
무응답	11	-
소계	67	-

●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할 사항(〈표 4-44〉 참고)

- 남의 농장에서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서 소독 및 방역 철저(31호), 백신정책(11

호), 시설현대화(9호), 초기대응(6호) 등의 순으로 응답

〈표 4-44〉 (남의 농장)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할 사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백신정책	11	AI 백신정책 전환 혹은 도입, 백신접종 실시 등
소독 및 방역 철저	31	-
시설현대화	9	소독 시설 보강(현대화시설) 혹은 개선, 철저한 운영, 발생농가의 살처분 조치 철저, 계사별 샤워실 및 밀폐형 차량소독시설 구비, 계사 내 온도 상승으로 계사 내 공기 유입구 관리 등, 식란보관창고를 농장 외부에 설치, 온도/습도/환기 관리 등
복합정책	1	규모 축소, 예방백신, 동물복지 등
초기대응	6	동절기 생축이동 시 사전검사 강화, 신뢰성 있는 품질검사(사료 및 소독약등), 야생동물 차단, 입식 전 검사 철저(중국 등 발생시 생축의 이동시 검사강화), 철새이동 막기, 초기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초기대응 중요 등
기타	2	건강한 사육환경(닭을 건강하게 키우자, 약해 보이는 동은 인위적 자가 살처분, 사육을 안 하는 방법 등)
부정확/모름	5	더 이상 할게 없음, 최선을 다했음 등
무응답	2	-
소계	67	-

● AI 발생가능성에 대한 의견(〈표 4-45〉 참고)

- AI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생할 것이라 보는 응답(38호)로 56.7% 차지
- 재발예상하는 세부 내용으로서 가능성은 상존하나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응답, 패널티를 줘서 자연 신고로 인한 재발 가능성과 시설보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있음.

〈표 4-45〉 AI 발생가능성에 대한 의견

재발예상 여부		재발예상 세부 내용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발생할 것이라 봄	38	최대노력	5	가능성은 상존하나 재발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 실시, 건강한 닭 입추 자연, 안 당할 것 같음, 금년에 발생하지만 우리 농장은 미 발생, 외출 자제 닭 건강, 운이라고 생각, 생산농가는 모두 최선을 다함 등
발생안할 것이라고 봄	14	예측불가	3	-
부정확/모름	11	재발가능	3	농가에 패널티를 줌으로써 자연신고 유발하는 현행 정책이라면 재발 가능, 시설을 보완하지 않는 한 재발 가능, 우리나라 기후조건 변화와 주변 축사 증가로 질병 확산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백신접종 부재 등
무응답	4	부정확/모름	3	-
		무응답	53	-
소계	67	소계	67	-

● AI 반복 발생가능성의 주요 원인과 대책(〈표 4-46〉 참고)

-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철새와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29호), 방역 미흡(7호), 공기 전파(4호) 등을 꼽고 있음.

〈표 4-46〉 AI 반복 발생가능성의 주요 원인과 대책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공기 전파	4	공기 전파, 백신 접종, 공기전파가 되므로 예방이 어렵지만 소독을 열심히 하는 방법 밖에 없다, 텃새도 이미 감염 등
철새+다른 요인 복합	29	철새와 공기전파, 철새와 소독방역, 철새와 백신, 철새와 사육제한, 철새와 불가항력 요인
지리적 여건	2	농장의 위치(풍세천 인근), 이전 외에 대책 없음, 지리적 여건(인근 오리농장 산재, 도계장) 등
방역 미흡	7	통제초소 미 운영, 거점 소독 시설 관리 철저,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을 가능성, 농가는 스스로 방역철저, 정부는 초기대응 철저, 종란 운반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 철저, 식용란 수입센터 설치 등
사육 환경	3	밀집 사육 개선, 평사사육 등 동물복지 확대, 비양심적인 기업형 농가 억제, 온도/습도/환기 관리 미흡 등
기타	5	사람+철새+차량 등 복합적 요인, 우리나라 기후조건의 변화와 주변 축사의 증가로 질병의 확산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 백신접종, 운이라고 생각, 재발방지를 위한 최대한 노력 실시, 지연신고(패널티를 없애서 성실신고 유도 등
부정확/모름	8	불가항력 현상, 사람이 막을 수 없음., 생각 안했음, 모르겠음 등
무응답	9	-
소계	67	-

4) 위탁농가 방역실태

● 계열업체의 방역지도 실태(〈표 4-47〉 참고)

- 계열업체의 방역지도 실태는 주로 방문지도(12호), 유선지도(3호), 지침전달(2호) 등 순으로 응답
- 방문지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지도, 교육, 자료 설명과 대화, 사양관리, 축사환경 점검 등

〈표 4-47〉 계열업체의 방역지도 실태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안함	1	-
방문지도	12	마니커 사람들이 방문(주1회) 지도 교육, 날씨기온방역 등 앉아서 대화, 자료 설명, 월 1회 방문, 수의사 방문 없이 사양 관리가 주 목적, 월 1회 이상, 초생추 입식시 축사환경 점검, 월 2회 정도 일반적 방역지도, 일상적인 사양관리 지도, 입식 때마다 방문, 입식 시 일반적 지도, 입식 출하시 방문, 평소에는 주로 전화나 문자, 주원농산(월 1회 이상 실시), 청소상태/소독설비/깔짚상태 등 지적, 하림계열로 지침서(4회/년) 및 수시로 지도 등
유선지도	3	-
지침전달	2	-
농가지울	1	-
부정확/모름	1	-
무응답	47	-
소계	67	-

● 계열업체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 계열업체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해당사항 없음(11호), 무응답(49호), 나머지 주관식 응답(7호)

- 주관식 응답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적 부담 부담 요구, 사료가격 등 부담 요구, 부당한 계약, 종 오리 경우 23주령부터 생산되는 종란에 대하여 인수, 이전 생산되는 종란은 인수거부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 발생, 소독상태 등 방역을 빌미로 입식제한 등 갑질 예상, 쓸데없는 승제(감량공제), 병아리 품질 신경 안 씀, 사료품질 저하, 애기 못함, 철저하게 방역부담 등

● 계열업체에게 바라는 사항(〈표 4-48〉 참고)

- 계열업체에게 바라는 사항으로는 사육비 문제, 좋은 물건 공급, 계약준수 문제, 보상금 문제 등임.

〈표 4-48〉 계열업체에게 바라는 사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없음	6	-
계약준수 문제	2	-
보상금 문제	2	보상금 등 배분 요구 사항 수용, 보상금 지분 배분
사육비 문제	7	사육비 상승, 사육비 인상 요청, 사육비 증액 필요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적기에 지급, 소독약 공급 등 방역 일정부분 부담, 정기적인 운영비 지급
좋은 물건 공급	3	건강한 병아리 분양, 사료나 병아리 좋은 것으로 공급, 입식 시 건강개체 입식 요구
부정확/모름	1	위의 반대
무응답	46	-
소계	67	-

● 계열업체와의 계약사항 중 고쳐야 할 사항(〈표 4-49〉 참고)

- 계열업체와의 계약사항 중 고쳐야 할 사항으로는 사육비, 계약준수, 기술지도 등임.

〈표 4-49〉 계열업체와의 계약사항에서 고쳐야 할 사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없음	46	-
사육비	8	AI 발생시 경비 농가50:사50, 사측 전액 부담 요청 농가 사육비 높여 줄 것, 물가 상승에 따른 사육비 탄력적 조정 비용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로 보건, 사육여건 마련을 위한 최소비용 지급 사육비 상승, 사육비 상향 조정
계약준수	6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음 계약사항에 있음에도 미준수, 이면 계약 존재 종란 납품계약(단기변동이 너무 큼) 표준계약서 작성 운영 건의
기술지도	5	사양관리기법
부정확/모름	1	많음
무응답	1	-
소계	67	-

● 정부 차원에서 계열업체에 대한 시정건의가 필요한 사항(〈표 4-50〉 참고)

- 정부 차원에서 계열업체에 대한 시정건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계약준수, 사육비 등임.

〈표 4-50〉 정부 차원에서 계열업체에 대한 시정건의가 필요한 사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없음	4	-
사육비	6	물가에 따른 사육비 인상 조정, 사육비 상승, 사육비 상향 조정 생산원가 조정, 이특금 증액 정산방법을 상대적 평가방식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토록 지도
계약준수	10	갑을 관계 이면 계약, 계약 준수, 계약사항에 대한 감사 계약서 확인 후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통합하여 표준화 계열주체는 수익 감소는 있을 지언정 손실은 없음 종란 납품계약(단가변동이 너무 큼) 표준계약서 작성 운영 건의 지속적인 계약체결내용을 지도점검하여 계열업체의 부당한 운영근절 표준 매뉴얼 작성 필요
부정확/모름	2	많음
무응답	45	-
소계	67	-

5) 축종별 사육환경 현황 : 산란계의 경우(37호~39호, 중복응답자 포함)

- 집란실이 농장 내외부 설치 여부, 내부에 있다면 외부 설치 계획(〈표 4-51〉 참고)
 - 집란실이 농장 내부 설치된 경우는 27호, 외부 설치된 경우는 11호인 것으로 나타남.
 - 내부에 있다면 외부에 설치할 계획인 농가는 6호, 없는 농가는 20호인 것으로 나타남.

〈표 4-51〉 집란실 내외부 설치 여부 및 외부 설치 계획

내외부 설치 여부		외부 설치 계획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내부설치	27	있음	6
외부설치	11	없음	20
		부정확/모름	1
		무응답	10
소계	38	소계	37

- 케이지 형태 및 단수(〈표 4-52〉 참고)

- 산란계의 케이지 형태는 주로 직립식 케이지(26호)로서 2단부터 12단까지 다양하게 분포, 그 외 A형 케이지(9호), 평사(4호) 등으로 나타남.

〈표 4-52〉 케이지 형태 및 단수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직립식 케이지	26	2단 3열, 3~4단 케이지, 3단 4열(3동) 4단 4열(2개동), 4단 6열, 4열 7단, 4열 8단(2동), 4열 9단 5단 5열, 5열 6단, 5열 7단, 5열 8단 6단 6단, 6단 5열(1개동), 8~12단 케이지, 8단 2층 구조, 9단 직립형 8열 8단 90케이지(산란계), 10열 6단 57케이지(중추) 직립식 5단, 6단, 7단, 8단(1개동, 무창계사), 10단, 12단(2개동)
A형 케이지	9	A형 4단 4열(3개동), 4동 2층 8단 5열 A형(3단), A형(2~3단), A형(2~4단)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A형, 3단 2열, 3단 3열, A형 3단, A형 3열, A형 3단 A형 케이지, 1동(2열4단), 2동(6열 5단), 3동(3열 4단)
평사	4	-
소계	39	-

- 시설현대화를 했을 경우, 시설현대화 전후의 파란(깨진 계란) 증가 여부(〈표 4-53〉 참고)
 - 시설현대화 전후 파란이 감소했다는 응답(11호), 파란 감소율은 최소 2-3%에서 최대 50-75% 사이 인 것으로 나타남.

〈표 4-53〉 시설현대화 전후의 파란 증가 여부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감소	11	파란 감소율 : 최소치 2%-3%, 최대치 50%-75% 사이
해당없음	21	-
부정확/모름	1	-
무응답	4	-
소계	37	-

- (나의 농장) 환우 실시 여부와 주기, (항상, 경우에 따라서) 환우를 안 할 수 없는 이유(〈표 4-54〉 참고)
 - 본인 농장이 환우를 하게 된 이유는 주로 경제성 및 수급조절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으로 응답

〈표 4-54〉 환우 안 할 수 없는 이유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환우시키지 않음	5	-
경제성, 수급조절에 따라서	10	닭값 대비 안 할 수 없음 중추 수급이 원활하다면 안 할 수 있음 상업적 측면에서 안하긴 어려움, 알 값 좋을 때 실시 원활한 병아리 공급을 위해서 안할 수는 없음 산란 실적이 좋지 않아 실시했으나 성적만 좋으면 안 할 수 있음 경제성에 따라 환우 결정(50일 정도) 계란값이 좋으면 환우를 시켰음(60주령) 계란값이 좋지 않으면 환우시키지 않음 수급조절이 원활치 않을 경우 실시(30%) 입식 후 신계성적이 좋지 않아 알 생산의 목적으로 딱 1회 환우
기타 경우에 따라서	5	-
항상	3	-
무응답	14	-
소계	37	-

주 : 환우란 닭에게 인위적으로 일정한 스트레스를 가하여 닭이 산란을 중지하고 일정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털갈이를 한 후 다시 산란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중추(중병아리)가 들어오는 지역(〈표 4-55〉 참고)

- 중추가 들어오는 지역은 주로 충청권으로 천안 풍세와 병천 지역, 공주, 당진 면천과 합덕 지역, 아산 둔포, 금산, 진천, 음성 등인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 상황에 따라 변동되어서 일정치 않다는 응답도 있음.

〈표 4-55〉 중추가 들어오는 지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상황에 따라 변동, 일정치 않음	5	-
해당사항 없음	1	-
강원권, 경기권	3	여주, 평택, 신창, 조인계열 위탁
충청권	19	천안 풍세/병천, 공주, 당진 면천/합덕, 아산 둔포, 금산, 진천, 음성 등
위탁농장	1	-
자가사육	7	-
부정확/모름	1	-
소계	37	-

● 난좌 재활용 여부, 반입 전 소독 여부, 소독방법, 소독 후 보관장소 등(〈표 4-56〉 참고)

- 종이 및 플라스틱으로 된 난좌의 경우 ‘재활용함’ 응답은 3호, ‘재활용하지 않음’ 응답은 36호
- 반입 전 소독 여부에 대해서는 ‘소독함’ 응답은 30호, ‘소독하지 않음’ 응답은 9호
- 소독 방법으로서 난좌외부만 소독(5호), 차량소독기 소독(8호), 고압분무기 소독(6호) 등
- 소독 후 보관장소로서 집란실(19호), 별도 창고(9호), 선별장(3호) 등

〈표 4-56〉 난좌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 실시 여부

재활용 여부		반입 전 소독 여부		소독 방법		소독 후 보관장소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재활용함	3	소독함	30	난좌외부만 소독	5	별도 창고	9
재활용하지 않음	36	소독하지 않음	9	소독안함	7	집란실	19
				고압분무기 소독	6	선별장	3
				차량소독기 소독	8	무응답	6
				기타소독	4		
				부정확/모름	2		
				무응답	5		
소계	39	소계	39	소계	37	소계	37

● 계란 운반차량의 소독실시 여부, 백중접종팀 (축사 출입 이전) 출입지역 확인 여부(〈표 4-57〉 참고)

- 계란 운반차량의 파레트 및 합판 소독실시 여부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다’ 응답은 32호,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응답은 5호
- 백신접종팀이 축사 출입 이전 출입지역 확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다’ 응답은 26호, ‘확인하지

않는다' 응답은 8호

〈표 4-57〉 계란 운반차량의 소독실시 여부 및 백신접종팀 출입지역 확인 여부

계란 운반차량 파레트 및 합판 소독실시 여부		백신접종팀 출사 출입지역 확인 여부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소독 실시함	32	확인함	26
소독 실시안 함	5	확인하지 않음	8
부정확/모름	1	부정확/모름	5
소계	38	소계	39

● AI 방역 시 산란계 농장만의 어려운 사항(〈표 4-58〉 참고)

- AI 방역 시 산란계 농장만의 어려운 사항으로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차량통제(15호), 계란 출하 및 계분 처리(7호) 등인 것으로 나타남.

〈표 4-58〉 AI 방역 시 산란계 농장의 어려운 사항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계란 출하 및 계분 처리	7	계란 유통/출하 및 계분 반출(동절기, 이동제한 시) 매일 유통을 해야 해서 어려움 차량 왕래가 필요, 발생 시 계분 처리
어려움 없음	8	-
경제적 어려움	3	-
차량 통제(이동제한 등)	15	계란, 계분 이동제한 장기화로 손실 증가 계분 이동제한에 따른 분뇨처리 적재장소 없음 기계적 전파 요인이 많음(알 운반차량 등) 유통업자 차단방역 어려움(난좌, 팔레트 등) 이동제한 시 종란 반출 중지, 식란 및 계분 보관 애로 빈 출사 계분처리 지연에 따른 재입식 불가
기타	4	계란 선별작업과 소독 등 일손 부족 긴 사육기간으로 관리/방역 어려움, 철저한 소독관리 어려움 인근 오리농가 발생
부정확/모름	2	-
소계	39	-

● 본인 축사의 밀집사육 여부에 대한 의견, 밀집사육일 경우 줄여야 하는 사육규모 수준

- 본인 축사의 밀집사육 여부에 대해서는 '밀집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 응답은 37호, '밀집사육 하고 있다' 와 '적정한 수준이다' 응답은 각 1호인 것으로 나타남.

6) 축종별 사육환경 현황 : 육계(3호), 오리(12호-15호), 토종닭 및 기타 축종(5호-7호)의 경우

● 축종별 연간 회전회수(〈표 4-59〉 참고)

- 육계 축종의 연간 회전회수는 6회전 이상-8회전 이하는 2호, 5회전 이하는 1호로 응답

- 오리 축종의 연간 회전회수는 5회전 이하, 6회전 이상-8회전 이하, 연간 1회는 각 4호, 2년 1회는 3호로 응답
- 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연간 회전회수는 5회전 이하 4호, 회전안함은 1호로 응답

〈표 4-59〉 축종별 연간 회전회수

육계		오리		토종닭, 기타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5회전 이하	1	5회전 이하	4	5회전 이하	4
6회전 이상-8회전 이하	2	6회전 이상-8회전 이하	4	회전안함	1
		연간 1회	4		
		2년 1회	3		
소계	3	소계	15	소계	5

● 축종별 All in-All out(올인올아웃) 준수여부(〈표 4-60〉 참고)

- 육계의 All in-All out(올인올아웃) 준수여부는 준수 2호, 미준수 1호
- 오리의 All in-All out(올인올아웃) 준수여부는 준수 10호, 미준수 3호
- 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All in-All out(올인올아웃) 준수여부는 준수 2호, 미준수 1호

〈표 4-60〉 축종별 All in-All out(올인올아웃) 준수여부

육계		오리		토종닭, 기타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준수	2	준수	10	준수	2
미준수	1	미준수	3	미준수	1
		해당사항없음	1		
		부정확/모름	1		
소계	3	소계	15	소계	3

● 육계의 경우) 산란계에 비해 AI 발생을 낮은데도 불구하고 AI 발생한 이유

- 육계의 경우, 산란계에 비해서 AI 발생을 낮은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유로서 주로 매몰비 관계, 사육 기간이 짧아 발생률이 낮으나 사육기간이 늘어나면 발생,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49일령)으로 사양부실 등을 꼽음.

● 오리의 경우) 자가사육 또는 위탁사육 여부, 주요 위탁업체(〈표 4-61〉 참고)

- 오리의 경우 위탁사육 10호, 자가사육 4호, 이 중 위탁사육 농장은 주로 모란식품 2호, 주원산오리 4호, 기타(서산 성호부회장, 오비아, 이윤덕/AT사료계열사) 3호로 응답, 자가사육 농장은 주로 원종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

〈표 4-61〉 오리의 자가사육 혹은 위탁사육 여부, 주요 위탁업체

자가사육 혹은 위탁사육 여부		위탁사육의 경우 주요 업체		
구분	빈도수(호)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위탁사육	10	모란식품	2	-
자가사육	4	주원산오리	4	-
부정확/모름	1	기타	3	서산 성호부회장, 오비아, 이윤덕(AT 사료계열사)
		무응답	1	-
소계	15	소계	10	-

● 오리의 경우) AI 발생 관련 문제점(〈표 4-62〉 참고)

- 오리의 경우, AI 발생 관련 문제점으로 무증상 및 조기발견 어려움(6호), 사육시설 열악(2호), 기타 의견(주변농가 발생, 검사 후 출하, 호흡기 질병 만연, 환경 문제 미 고려) 등을 꼽음.

〈표 4-62〉 오리의 AI 발생 관련 문제점

구분	빈도수(호)	주요 내용
문제점 없음	3	-
사육시설 열악	2	겨울철 보온유지를 위해 환기가 불량하여 가스발생으로 인한 환축발생 대부분 육용오리 농가 사육 시설 열악
무증상, 조기발견 어려움	6	임상발견 등 예찰 곤란, 조기발견 어려움 등
기타	4	종오리의 병아리 생산, 주변농가 발생, 검사 후 출하 호흡기 질병 만연(분동시 질병에 취약) 환경적 문제와 함께 생각해야 함(하천, 야생동물 접근 어려운 곳에서 사육 필요)
소계	15	-

● 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경우) AI 예방을 위해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 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경우, AI 예방을 위해서 구조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주로 All in-All out 사항 준수, 사육환경개선(사료, 소독, 백신등), 현대화된 농장 등 시설개선, 초기 대응 등을 꼽음.

● 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경우) 소규모 도계장 설치하면 도내 적정 개소수

- 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경우,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게 되면 도내 적정 개소수를 2~3개소 응답은 2호, 5개소 응답은 1호

● 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경우) 토종닭은 AI 차단방역 어려운 이유

- 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경우, AI 차단방역이 어려운 이유로서 주로 소규모 농가들은 1톤 차량이 여러 집을 거쳐서 상차, 열악한 사육시설(만약 무창계사였다면 토종닭이 아닌 육계를 사용하겠음), 장기적 사육으로 인한 소비자 특성상 회사마다 사정의 어려움 등을 꼽음.

7) 재발농가의 방역실태

● 재발원인에 대한 자가 진단

- 67호 응답자 중 59호 무응답, 잘 모르겠거나 문제없음은 2호, 나머지 6호만 응답하였는데 재발원인으로서 주로 노계 사육, 차단방역 부족, 천안지역 살처분 지연에 따른 공기의 반복적 전파, 철새주변 오리농가차량 등을 꼽음.

● 재발방지에 성공한 농가에 대한 의견

- 67호 응답자 중 59호 무응답, 이유없음은 2호, 나머지 6호만 응답하였는데 재발방지에 성공한 농가를 주로 우연한 행운, 차단방역, 조기출하 등으로 보고 있음.

●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 사항(사육중단, 이전, 시설 전체 개보수 등)

- 67호 응답자 중 59호 무응답, 사육중단하지 않을 것은 1호, 나머지 7호만 응답하였는데 주로 그래도 계속 병위, 사육중단 휴식년제 찬성, 생각 안 했지만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 입식 전 사전 검사 철저, 재 사육 계획, 축종 변경 등을 꼽음.

● 재발방지 위해 특별 조치 계획

- 67호 응답자 중 59호 무응답, 나머지 8호만 응답하였는데 주로 닭을 건강하게 사육, 차단 방역 및 소독 철저, AI 백신지원 등 백신정책 도입, 야생조류 수렵허가, 전실 신축 및 보완, 취약시기 휴업, 축종변경(오리→토종닭)등을 꼽음.

3. 요약 및 시사점

● 방역실태 현황

- 차량 외부소독 및 운전자 방역조치, 외부인 출입통제, 개인위생관리 및 소독, 각종 기록부 작성, 야생조류 및 동물 등에 대한 차단시설 설치, 전용 방역복 및 장화 착용, 발판소독조 구비, 축사 내외부 장비 소독, 축사 내부 장비 반입 시 소독과 방역복과 장화 착용, 계분 작업 후 소독 및 세척 등은 대부분 실시하는 편이라고 응답
- 반면 종사자(외국인) 외출관리는 절반 정도가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
- 소독약 사용방법도 설명서대로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마당청소 및 소독주기는 주 1-2회, 발판소독조 소독약 교체주기 일 1-2회, 축사 내외부 장비 소독주기는 주 1-2회가 가장 많음. 폐사체 수거 및 적절한 폐기 실시 여부는 대부분 실시하고 주로 계분처리
- 방역활동 중 제일 자신있는 사항은 철저한 소독, 대부분 소독설비 및 소독활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 중요한 방역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중요성 미인식, 시간과 관심부족 순으로 응답, 내가 하고는 있지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방역조치로서 소독약 및 소독활동이 차지
- 타 농장으로 배워야 할 방역조치는 43%가 해당없음으로 응답, 그 외 소독설비 및 활동, 시설현대화, 출입 및 접촉통제 순으로 응답
- AI 발생 시 행정기관의 잘한 점은 44.7%가 해당없음으로 응답(30호), 신속처리(15호), 방역활동(11호) 순으로 응답, 못한 점은 살처분 및 보상금 처리(23호), 방역활동 미흡(18호), 현장지휘체계 미흡(9호) 순으로 응답
- 정부에게 향후 바라는 사항은 방역지원 문제, 보상금 문제, 정보제공과 소통 문제, 백신공급 및 개발 문제, 규제 개선 순으로 희망, 정부가 향후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보상금 지양 및 삭감, 살처분 정책, 방역활동, 규제강화 및 탁상행정, 삼진아웃제 순으로 희망
- 3진 아웃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반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유로서 생계수단, 농가책임 전가부당, 원인분석 중요, 폐업보상금 지원 등
-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대한 의견은 반대 응답이 높은 데 이유로서 현실적용 불가능, 경제측면 우선 등, 타농장 방역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예방적 살처분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초기강력대응(방역)활동, 살처분 반경 재설정과 조기출하, 백신공급과 개발, 탄력적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 순으로 응답
- 거점소독시설 효과는 있음과 없음이 팽팽하게 대립, 위험지역의 선택적 AI 예방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강화된 재입식 과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 경제적 피해 우려, 현실과 괴리 순으로 응답

● 책임의식 수준 실태

- AI 발생농가 패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당하다는 응답이 우세, 이유로서 모든 것을 농가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 오히려 지원확대가 필요, 책임소재 및 원인 불분명, 보상금 삭감이 지연신고 결과를 초래, 자연재해 원인 등 제시
- AI 발생으로 인한 정부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으로는 당연하다는 응답이 우세, 이유로서 AI는 자연재난이고 불가항력인 현상, 아직 책임소재 및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살처분 및 매몰 등은 국가가 명령한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의견 등 제시
- AI 발생으로 인한 농가 비용부담 의견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우세, 반대 이유로서 경제적 피해 우려, 일부분담 및 공동책임, 농가책임전가 부당, 정부대응 미흡, 자연재해 원인, 책임 소재 및 원인 불분명 등 제시, 찬성 이유로서 매몰비 부담, 인건비(방역초소 등) 부담, 매출액의 일정부분 부담 등 제시
- AI 발생 시 가금농가의 책임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규모축소, 사육제한 및 축소, 소득 및 방역강화, 책임의식 강화, 규정개선 등 제시
- 일반인이 보는 기업형 축산농가의 방역비용 미부담이 부당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 25호, 반대한다는 응답 23호로 팽팽하게 대립

● 발생원인 자가진단

- AI 발생의 책임 주체는 국가(25호), 농가(10호), 지자체(8호), 기타(24호) 순으로 응답, 기타 의견 내용은 공기전파 및 철새 등 자연적 요인, 책임소재 불분명 등 원인불분명, 사람에 의한 전파 등으로 응답
- AI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으로 야생동물 전파(19호), 차량과 사람 전파(19호), 복합요인(15호), 공기 전파(7호) 등 순으로 응답
- 나의 농장에 AI가 발생한 이유는 공기 전파(19호), 야생동물 전파(16호), 방역 미흡(9호), 차량과 사람 전파(8호) 순으로 응답한 반면 아쉬웠던 조치사항 및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서 소득 및 방역 미흡, 사육환경 관리 소홀, 야생동물 차단 등 접촉요인 제거 순으로 응답
- 남의 농장에서 AI 발생을 막은 조치 사항으로서 소득 및 방역 철저, 불가항력적이라 모름, 우연한 행운,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리적 여건 등 순으로 응답한 반면 아쉬웠던 조치사항은 불가항력적이라 모름, 소득 및 방역 철저, 접촉요인 제거, 복합적 요인, 백신정책, 시설현대화, 초기대응 등 순으로 응답

- AI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생할 것이라 보는 응답(38호)로 56.7% 차지, AI가 반복적으로 발생 할 가능성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철새와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방역 미흡, 공기 전파 순
- 재발예상하는 세부 내용으로서 가능성은 상존하나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응답, 패널티를 줘서 지연 신고로 인한 재발 가능성과 시설보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

● 위탁농가 방역실태

- 계열업체의 방역지도 실태는 주로 방문지도로서 주요 내용은 방역지도, 교육, 자료 설명과 대화, 사양관리, 축사환경 점검 등
- 계열업체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경제적 부담 부당 요구, 사료가격 등 부당 요구, 부당한 계약, 종오리 경우 23주령부터 생산되는 종란에 대하여 인수, 이전 생산되는 종란은 인수거부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 발생, 소독상태 등 방역을 빌미로 입식제한 등 갑질 예상, 쓸데 없는 승제(감량공제), 병아리 품질 신경 안 씀, 사료품질 저하, 얘기 못함, 철저하게 방역부담 등
- 계열업체에게 바라는 사항, 고쳐야 할 사항, 정부차원의 시정건의 사항으로는 사육비, 좋은 물건 공급, 계약준수, 보상금 등임

● 축종별 사육환경 현황

- 산란계의 경우는 2단부터 12단까지 직립식 케이지 사육형태를 보이고 있고, 시설현대화로 인한 파란 감소 효과 경험, 난좌 및 계란 운반차량 소독활동은 약 50% 농가가 실시, 환우를 하는 이유로서 경제성 및 수급조절, AI 방역 시 차량통제, 계란 출하 및 계분 처리에 어려움, 본인 축사가 밀집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 우세
- 육계의 경우, 산란계에 비해서 AI 발생을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유로서 주로 매몰비 관계, 사육 기간이 짧아 발생률이 낮으나 사육기간이 늘어나면 발생,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49일령)으로 사양부실 등
- 오리의 경우 AI 발생 관련한 문제점으로 무증상 및 조기발견 어려움(6호), 사육시설 열악(2호), 기타 의견(주변농가 발생, 검사 후 출하, 호흡기 질병 만연, 환경 문제 미 고려) 등
- 토종닭 및 기타 축종의 경우, AI 예방을 위해서 구조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주로 All in-All out 사항 준수, 사육환경개선(사료, 소독, 백신등), 현대화된 농장 등 시설개선, 초기 대응 등, AI 차단방역이 어려운 이유로서 주로 소규모 농가들은 1톤 차량이 여러 집을 거쳐서 상차, 열악한 사육시설(만약 무창계사였다면 토종닭이 아닌 육계를 사용하겠음), 장기적 사육으로 인한 소비자 특성상 회사마다 사정의 어려움 등

● 재발농가의 방역실태

- 재발원인에 대한 자가 진단결과, 주로 노계 사육, 차단방역 부족, 천안지역 살처분 지연에 따른 공기의 반복적 전파, 철새주변 오리농가차량 등을 꼽음.
- 재발방지에 성공한 농가를 주로 우연한 행운, 차단방역, 조기출하 등을 보고 있음.
-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 사항(사육중단, 이전, 시설 전체 개보수 등)으로서 주로 그래도 계속 병위, 사육중단 휴식년제 찬성, 생각 안 했지만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 입식 전 사전 검사 철저, 재 사육 계획, 축종 변경 등을 꼽음.
- 재발방지 위해 특별 조치 계획으로서 주로 닭을 건강하게 사육, 차단 방역 및 소독 철저, AI 백신 지원 등 백신정책 도입, 야생조류 수렵허가, 전실 신축 및 보완, 취약시기 휴업, 축종변경(오리→토종닭)등을 꼽음.

05 결론

- AI 방역(예방 및 대처) 매뉴얼의 인지도, 이해도, 실천정도와 관련하여 축산농가와 축산담당자들은 시각차이가 있었고 정책 정보, 정책 소통과정 등 상호 불신하는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축산농가 및 축산담당자들 모두 AI 방역(예방 및 대처) 매뉴얼은 인지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수준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세심한 교육과 지도, 지원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금과 같은 방역수준으로는 향후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음에 관련 주체들의 긴장의식 유지와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AI 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집합식 교육이 아닌 농가유형별 맞춤형 교육, 체험형 실습교육 등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방역교육 방향과 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할 것임.
- AI 발생원인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원인을 내부적 요인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서 주로 찾고 있음.
- 타지역과 타농장의 성공사례도 그저 우연한 행운이라고 보는 의식이 팽배함.
- 농가 스스로 소독 및 방역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AI는 자연재해 및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적이므로 전반적으로 억울하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음.

- 농가 스스로도 AI 방지를 위해서 소독 및 방역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정부 정책과 대응 측면에서는 불신이 상당히 높음.
- AI 발생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이 지배적임.
- AI 발생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로서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은 신고 지연, 패널티 부과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오히려 의도치 않은 결과,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 상존함.
- 잘못된 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오류로 인해서 각자 생각하는 공통의 해결방안 모색 힘들.
 - 일례로, 농가는 AI가 자연재해이므로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음.
 - 모두가 원인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고 해버리면 문제해결은 점점 요원해짐.
 - 공통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정보의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임.
- AI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외상과 스트레스 치유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함.
 - 일례로, 농가는 AI로 인해서 주변사람에게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다고 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힘.
 - 부정 생각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치료과정 등 위로하는 의식과 절차를 밟을 필요함.

참 고 자 료

- 정옥식, 김기홍(2017), 한-일 정책 비교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전략, 전략연구 2017-**, 충남연구원(근간).
- 축산법[시행 2017.9.22.] [법률 제14654호, 2017.3.21., 일부개정]
- 충남연구원(2017), 충청남도 가금사육농가의 방역인식 실태 설문조사.
- 충남연구원(2017), 충청남도 가축방역종사자의 방역인식 실태 설문조사.
-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심층 조사표.

충청남도 가금사육농가의 방역인식 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에서는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해 농장에서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설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본인의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답해주시면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응답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A 기초 현황		
1	농장주의 연령 ()세	
2	농장의 위치 ()시/군 ()읍/면	
3	사육하시는 가금류 종류 및 두수 (해당되는 가금종류란에 두수를 적어부 세요)	산란계 ()마리
		토종닭 ()마리
		종계 ()마리
		육계 ()마리
		육용오리 ()마리
		중오리 ()마리
	기타() ()마리	
4	허가 축사 면적 / 무허가 축사 면적	허가 ()평 / 무허가 ()평
5	이웃한 농장과의 거리	()km
6	농장 종사자수(본인포함)	()명
7	가금 사육에 종사하신 기간	()년
8	과거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험	있다 (), 없다()
9	사육형태	직영(), 위탁(), 기타()
10	계열주체(농장 혹은 회사명)	()

B 긴급행동지침(매뉴얼) 인지도		
1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가(축산 종사자)가 지켜야할 긴급행동지침(예방 매뉴얼)을 알고 계시나요?()	① 잘 알고 있고 내용도 숙지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있는 줄은 알지만 내용은 모른다. ④ 처음 듣는다 → 6번 문항으로 가세요
2	알고 계신다면 어디서(어떻게) 알게 되 었나요?()	① 관련 교육 ② 기관, 지자체 ③ 주변 축산농가 ④ 자체적으로 입수 ⑤기타()
3	행동지침에 대한 이해도는? ()	① 잘 이해된다 ② 어느 정도 이해된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르겠다 ⑤ 전혀 모르겠다
4	행동지침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	① 잘 실천하고 있다→ 6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어느 정도 하고 있다→ 6번 문항으로 가세요 ③ 보통이다→ 6번 문항으로 가세요 ④ 실천 하지 않는다 → 5번 문항으로 가세요 ⑤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5번 문항으로 가세요

5	(4번문항에서 아니라고 답하신 분만 응답바랍니다) 아니라면 그 이유는 ? ()	① 여건상 힘들어서 ②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③ 너무 막연해서 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④ 기타()
6	평소 실천하시고 계시는 것은? (중복응답가능:)	①사육 가축의 예찰 ②축사 내외부 주1회 이상 소독 ③농장 출입하는 모든 사람, 차량의 소독 ④축산관련 종사자 방문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착용
7	행동지침을 잘 따른다면 AI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정도는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8	행동지침 보충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기입해주세요	
9	본인만의 실천하는 예방책이 따로 있으시다면 기입해주세요	

C 조류인플루엔자 인지도

1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된 조류의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2	하루에 몇 번 정도 조류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시나요?()	① 수시로 한다. ② 하루에 꼭 1번 정도는 건강 체크를 한다. ③ 건강체크는 하지 않지만 축사 출입시 살펴는 편이다. ④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3	하루에 몇 대 정도의 차량이 농장을 방문하나요? 본인 차량, 택배 차량 모두 포함	평상시는 ()대 가장 많을 때는 ()대
4	최근 주변 축산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나요? ()	① 뉴스(TV,신문,인터넷) ②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통보 ③ 관련 업종 종사자 ④ 마을 주민
5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출입통제를 위한 차단막 설치 ② 추가적인 주변 및 축사 소독 ③ 가축 예의 주시 ④ 기타()

D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험이 있으신 농가만 작성해 주세요!!		
1	조류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조류가 보였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①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닐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 ② 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격리하고 상황을 지켜보자 ③ 지자체 혹은 관련 기관에 신고부터 하자 ④ 혹시 모르니 외부 출입 막고 통제하자
2	본인 축사에 질병 의심축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	① 한, 두마리가 이상 증상을 보였을 때 ② 상당수(10마리 내외)가 이상 증상을 보였을 때 ③ 이상 증상 이후 한, 두마리가 죽었을 때 ④ 이상 증상 이후 상당수(10마리 내외)가 죽었을 때 ⑤ 기타()

E 방역교육 만족도 및 개선방안		
1	최근 3년 간 가축질병 예방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횟수는? ()	① 없다 ② 있다, 최근 3년간 ()회
2	현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교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4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만족한다 → 4번 문항으로 가세요 ③ 보통이다 → 4번 문항으로 가세요 ④ 만족하지 않는다 → 3번 문항으로 가세요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 3번 문항으로 가세요
3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현재 농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 6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필요하다 → 6번 문항으로 가세요 ③ 보통이다 → 6번 문항으로 가세요 ④ 필요하지 않다 → 5번 문항으로 가세요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 5번 문항으로 가세요
5	필요없다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다음중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 교육 형태는 무엇인가요?()	① 농가별 소그룹 교육 ② 농가유형별 맞춤형 교육 ③ 체험형 실습교육 ④ 지역별/권역별 순회 집합교육 ⑤ 현장사례 교육
7	집합 교육 및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가축질병 체험교육을 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있다 ②없다 ③아직은 모름
8	체험교육을 실시한다면 가축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② 효과적인 것이다. ③ 보통일 것이다 ④ 효과가 없을 것이다 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E	방역교육 만족도 및 개선방안	
9	가축재난 체험교육센터가 건립된다면 다음중 어떤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가능:)	①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 ② 홍보 활동 및 관련 프로그램 ③ 체험 교육용 전시물 구성 ④ 시청각교육

*** 기타 가축질병 예방, 확산 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에 바라는 점 있으시면 기재해 주세요**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그리고 소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 가축방역종사자의 방역인식 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서는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질병 대책 종사자의 인식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설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하시는 바를 솔직히 답해주시면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응답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A. 매뉴얼 관련 업무

1.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한 전문 지식은 어디서 습득하십니까?

- ① 교육 ② 자체적인 습득 (전문서적, 인터넷 등) ③ 관련 매뉴얼, 지침 ④ 기타()

2. 귀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처 매뉴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의 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잘 따른다면 AI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축산농가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처 매뉴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의 이해 정도)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농가들이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관리, 방역과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예방 및 대처 매뉴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8.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농민들에게 교육 및 실행 관리 감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

B. 교육 관련 업무

9.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1년에 몇 회 실시하십니까?

- ① 0회 ② 1-2회 ③ 3회-5회 ④ 5회 이상 / 혹은/ (회)
10.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현재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12. 다음 중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 교육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가별 소그룹 교육
 ② 농가유형별 맞춤형 교육(농가유형: 자가사육 혹은 위탁사육, 대규모/중소규모 등)
 ③ 체험형 실습교육
 ④ 지역별/권역별 순회 집합교육
 ⑤ 현장사례 교육
13. 농가에 대해 질병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한다면, 가축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가축재난 체험교육센터가 건립된다면 다음 중 어떤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가능 :)
 ①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
 ② 홍보 활동 및 관련 프로그램
 ③ 체험 교육용 전시물 구성
 ④ 시청각교육 프로그램
 ⑤ 기타 ()

C. 단계별 조치사항 업무

(점검 단계)

15. 일 년에 각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예방 혹은 관련한 점검을 몇 번 하십니까?
 ① 연 1회 미만 ② 연 1회 ③ 연 2년 ④ 연 3회 ⑤ 연 4회 이상
16. 관할기관 내 각 농가들이 AI전파를 예방할 대비(소독이나 방지 시설 등)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발생 전 단계)

17. 조류독감 확산과 유행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장 소독과 관리 등 농가 책임의식 소홀
 ② 발생시 정부나 지자체의 초동 대응 미숙
 ③ 밀집사육 등 축산환경 조건의 미흡
 ④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관리 소홀
 ⑤ 하천 등으로 철새 유입과 이동

- ① 가축분뇨 자원화정책 ② 가축분뇨 에너지정책(바이오가스 등) ③ 토양/수질/대기 등 환경 중심 정책
 ④ 자원순환 농업정책(유기농업) ⑤ 안전한 동물먹거리/식품 정책 ⑥ 기타()

E. 일반 사항

28.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기간은 얼마입니까? ()년

29. 귀하의 근무기관은 어디십니까?

- ① 시군청 ② 읍면사무소 ③ 수의사회 ④ 방역본부 ⑤ 농,축협 ⑥ 기타()

30. 귀 근무기관의 관할지역은 어디신가요? (시/군 읍/면/동)

귀한 시간 내어서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심층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하여 농가별 방역실태·여건·의식 등을 분석, 농가방역 교육 및 실효적인 방역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설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하시는 바를 솔직히 답해주시면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역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응답 결과는 정책활용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본현황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근무자	총 명()						
농장 현황	품 종		산란계, 종계, 종오리, 토종닭	사육규모	수, 입식중		
	사육형태			방역시설	차량소독, 전실		
	발생	발생일자		살처분수			
		발생일자		살처분수			
발생일자			살처분수				

심층조사 문항

방역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소독필증 및 GPS 장착여부 확인하나? - 발생시기 차량소독필증 보관해야 하는 것 알고 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분무기 이용, 차량바퀴 및 외부 소독 하나? - 안한다면 왜 안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약 희석배수는? 	① 설명서대로 ② 2배 ③ 3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자에 대해 방역조치(운전석 소독, 비닐 등)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 후 작업복 교체, 신발세척·소독, 손씻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인(택배, 우체국, 주민)의 농장출입 통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실시기록부, 출입기록부 작성여부? - 작성은 누가? - 출입자의 작성여부 관리감독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당청소와 소독실시 주기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조류 차단위해 그물망, 축사구멍 보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고양이, 쥐) 차단위해 축사주변 생석회 도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서관리(살서제, 미기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별 전용 방역복 및 장화 착용여부? - 안한다면 왜 안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별 발판소독조 구비 및 소독약 교체주기? 	여부,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 내외부 장비(왕겨살포기 등)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 한다면 몇일 주기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내부 장비(수레, 물이망) 반입시 소독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시 상차반의 방역복, 장화착용 확인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폐사체 수거, 적절히 폐기 여부? - 어떻게 폐기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분 작업 후 항상 소독 및 세척실시 여부? - 생계분 인근밭 살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증상, 폐사(산란)일지, 사료입고, 약품사용 기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외국인)의 외출관리 여부? - 한다면 어떤식으로 관리? - 안한다면 왜 안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하고 있는 방역조치는? - 안한다면 그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조치중에서 내가 하고는 있지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농장에서 하는 것중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발생시 시·군(도, 농식품부)에서 잘한점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발생시 시·군(도, 농식품부)에서 못한점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앞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앞으로 하지말아야 할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농장에서 개선할 사항은? - 시설개선(전실, 샤워실) 또는 방역조치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진아웃제(5년내 3번발생) 도입에 대한 생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대한 생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농장(익산) 방역성공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에 대한 생각은? 	①효과 ②효과없다 ③ 오염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재입식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 선적택적인 AI 예방백신 접종에 대한 생각은? 	

책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발생농가 패널티 부과에 대한 생각은? - 당연하다면 어떤 패널티를? - 부당하다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① 당연 ② 부당 ③ 기타 정부지원 배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농장에 AI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든 생각을 해본적이 있나? - 있다면 AI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가금협회 차원에서 AI 차단방역을 위한 조치를 하자고 논의한 적이 있나? - 있다면 뭘 논의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발생으로 정부예산 지출이 심각한데 정부가 비용의 전부를 지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당연하다면 왜 당연한가? - 부당하다면 누가 부담해야하나? 	① 당연 ② 부당 ③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농가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아니라면 왜 그런가? - 부담해야 한다면 무엇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① 해야한다 ② 아니다 ① 매몰비 ② 인건비(초소 등) ③ 매출액의 ()% ④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발생시 주변의 축산·비축산농가, 일반인 및 정부의 피해가 크데 가금농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 	①사육제한 ②규모축소 ③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실시 또는 소독시설 설치가 귀찮거나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싫어 외면한적은 없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수준의 축산농가에서 방역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반인들의 견해에 대한 생각은?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발생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농가, 국가, 지자체, 기타
--	-----------------

▪ 우리농장은 왜 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 철새, 차량, 사람 등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시 발생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 이렇게 했으면 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은?	
▪ 시를 막은 농장은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 다른 농장에서 이것을 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사항은?	
▪ 재발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또 발생할 것 같다면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은?	

위탁농가

▪ 계열업체의 방역지도는 어떻게 하나?	
▪ 계열업체가 부당하게 요구한 것은?	
▪ 계열업체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 계열업체와 계약사항 중 고칠것이 있다면?	
▪ 계열업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산란계

▪ 집란실이 농장 내외부 어디에 설치하였나? - 내부에 있다면 외부에 설치할 계획은?	
▪ 케이지 형태 및 단수는?	
▪ 시설현대화 했다면, 현대화 전후의 파란증가 여부?	증가,감소/증가율 , 감소율
▪ 이 농장에서 환우를 시키는지? - 시킨다면 얼마나 하는지? (항상, 경우에 따라) - 환우를 안할 수는 없는지?	
▪ 중추는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업체 / 지역)	
▪ 난좌(종이, 플라스틱)는 재활용 여부?	
▪ 난좌(종이, 플라스틱)는 반입전 소독하는지? - 소독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 소독 후 보관장소? - 안한다면 그 이유?	
▪ 계란 운반차량의 파레트, 함판 소독실시 여부?	
▪ 백중접종팀 축사 출입전 이전의 출입지역 확인여부?	
▪ 시 방역시 산란계 농장만의 어려움은?	
▪ 본인의 축사는 밀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밀사라면 어느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	

육 계

▪ 1년 몇 회전시키나?	
▪ All in - All out은 준수여부? - 올인올아웃 유도를 위해 선행조건이 있다면?	
▪ 산란계에 비해 발생율이 낮는데 왜 발생했나?	

오 리

▪ 자가사육 또는 위탁 여부 - 위탁이라면 위탁업체는?	
▪ 1년 몇회전하나?	
▪ All in - All out은 준수하나? - 안지킨다면 왜 안지키나?	
▪ 시 발생관련, 오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